

50⁺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람을 생각하는 연구
사회를 이끌어갈 동력

50⁺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¹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2021년 3월 11일(목) 09:30~18: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목 차 / Contents

개회사	07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사	11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환영사	19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기조연설	23
사회적 측면에서 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보장 요아킴 팔메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교수	
[메인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51
[세션 I] 주요국의 COVID-19 대응 및 with-COVID 정책	53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사회정책 브루노 팔리에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 5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노르웨이 KINDknow의 대응 엘린 에릭센 외데가르드 노르웨이 웨스턴 대학 KINDknow 연구소 교수 85	
[세션 II]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105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마틴 알브레히트 독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소장 109	
보건복지정책에서의 일본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IPSS)의 역할 쿠니아키 타나베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소장 131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및 보건의료 정책: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THL)의 역할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14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프로그램

09:30~09:50		개회식
개회사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환영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09:50~10:00		기념 촬영
10:00~10:40		기조연설
기조연사	요아킴 팔메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교수
10:40~12:10		[메인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좌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이혜경	연세대학교 명예교수/前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2:10~13:30		오찬
13:30~15:30		[세션 I] 주요국의 COVID-19 대응 및 with-COVID 정책
좌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브루노 팔리에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
	엘린 에릭센 외데가르드	노르웨이 웨스턴 대학 KINDknow 연구소 교수
토론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
	박경숙	경기대학교 교수
	이상은	송실대학교 교수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교수/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대 원장
	최은영	충북대학교 교수
15:30~15:50		휴식
15:50~18:20		[세션 II]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좌장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발제	마틴 알브레히트	독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소장
	쿠니야키 타나베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소장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토론	김미곤	세종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대 원장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前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18:20~18:30		폐회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th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개회사

조흥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흥식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의 개념과 영역이 알고 일천했던 1970년에 개원하여 격동의 시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정진해왔습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의 공습과 공존이 안겨준 전 지구적 현안에 대응할 미래사회의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시기 국가 보건·복지 정책을 지원하고 선도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개원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원은 오랜 역사적 전통과 명맥을 계승하고, 해외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기회로 삼고자 오늘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이동이 불편한 여건에서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스웨덴 웁살라대학의 요아킴 팔메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메인세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주요국의 COVID-19 대응 및 with-COVID 정책’과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2개의 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확진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봉쇄조치로 급격한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용률 하락은 소득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지원금 확대, 코로나 확진자 지원 병원에 대한 병원의 매출손실 지원 등으로 인한 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지금 모든 유럽국가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사회경제적 봉쇄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인 방역조치와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통해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역량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팬데믹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래 연구가 중요합니다. 미래연구를 바탕으로 위기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위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 마련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돌봄, 아동돌봄, 보호 서비스, 주거 등의 돌봄서비스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각 국가는 그 보편성을 확대해나가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대규모 공공재원을 상병수당, 실업급여, 고용주 지원, 돌봄체계 등에 집중하는 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함께 현금·현물을 포괄하는 소득지원을 통해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한 빈곤 완화와 사회적·교육적 격차 해소는 절박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정부부채의 증가는 이후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회보장기여금과 재정 간 조율에 대한 해법 모색이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post-코로나를 넘어 with-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움의 자리가 대전환시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연구기관의 네트워크 확장과 지속적인
학술적 교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th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축 사

김민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원 5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흥식 원장님,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970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정책수립을 위해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 및 사회정책의 싱크탱크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립과 성장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 특히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미래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학술심포지움도 그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움에서 보건복지·사회보장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과 발전 방안이 제시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1주년을 축하드리며,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정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민 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축 사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축 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해경 연세대 명예교수님,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가능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 대응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인지도 일깨워주었습니다. 의료, 돌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공병원, 긴급복지,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커다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사회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의 방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와 비대면 서비스는 뉴 노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사회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정책 혁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노동시장 구조에 맞게 설계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재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한국의 보건복지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 변화된 시대에서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할 오늘 국제학술심포지움의 개최가 굉장히 시의적절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정책은 과거의 모방형, 추격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정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불평등을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th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포용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나라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 계층에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통해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뿐 아니라 삶의 질에서도 세계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는 미래는 우리가 설계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미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환영사

정해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원 50⁺¹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에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여해주신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 한국의 보건복지의 발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 발전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중점은 항상 경제성장에 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건복지는 민주화 이후,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나름 빠른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보건복지는 비록 뒤늦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보건복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1971년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 50년 동안 한국의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포지움 개최에 즈음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0⁺¹’주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50⁺¹’주년일까요?

제 나름의 판단으로는 ‘50⁺¹주년’이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것은 Covid-19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가 미친 영향이 그 동안의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를 구분시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Covid-19는 그 이전 시기와 그 이후 시기를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50⁺¹’주년의 의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50년 역사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원년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Covid-19 위기에 매우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행정당국 그리고 국민의 협조가 만들어낸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성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원년의 시점에서 한국은 나름 선구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셈입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Covid-19 위기의 결과에 대해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환경을 가진 복지선진국들이 Covid-19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의 보건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대로 짚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기조연설]

사회적 측면에서 본 팬데믹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보장

기조연사 **요아킴 팔메** |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교수

- 前 스톡홀름 미래연구원장
- 前 스톡홀름 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겸임 교수
- 前 스웨덴 복지위원회 의장





사회적 측면에서 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보장

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교수



The Social Dimension of Pandemics: Social Security post-Covid-19

Joakim Palme
Department of Government
Uppsala University



팬데믹과 예상치 못한 미래

- 예상하지 못한 미래 – 가능성은 낮지만 큰 충격 초래
- 제국의 몰락, 기술적 붕괴, 혁신, 기후변화, 팬데믹 등
- 예상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위기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팬데믹은 예측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예방, 개선, 회복 및 보완해야 할 것임.



Pandemics and unexpected futures

- Unexpected futures – low likelihood but big impact
- The fall of empires, technological breakdowns, breakthroughs, climate change, pandemics
- Once we start to study unexpected futures, they not only become part of our expectations but we also become better prepared
- Pandemics are predicted: so we can prepare, prevent, ameliorate, repair, compensate



‘대침체(Great Recession)’의 교훈

유럽의 경험:

- 다양한 위기 경험
- 유럽 내 양극화
- 통화동맹에 필요한 재정적 구성요소:
 - 공통 실업보험의 경우(유로존 회원국간)
- 부담의 분담 방식, 복지국가의 중요성
- 정치, 정책이 중요한 이유:
 -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 (드라기(Drahgi) 총재의 유로화 방어)
 -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보호 체제가 위기 완화에 도움을 줌



Lessons from the 'Great Recession'

The European experience:

- Varieties of crisis experience
- European divergence
- Monetary union in need of fiscal component:
 - the case for a common unemployment insurance component, at least for the EURO Member States
- How burdens were shared and welfare states mattered
- How politics and policies mattered:
 - what ever it takes! (Drahgi's defense of the EURO)
 - adequate and sustainable systems of social protection cushioned the impact of the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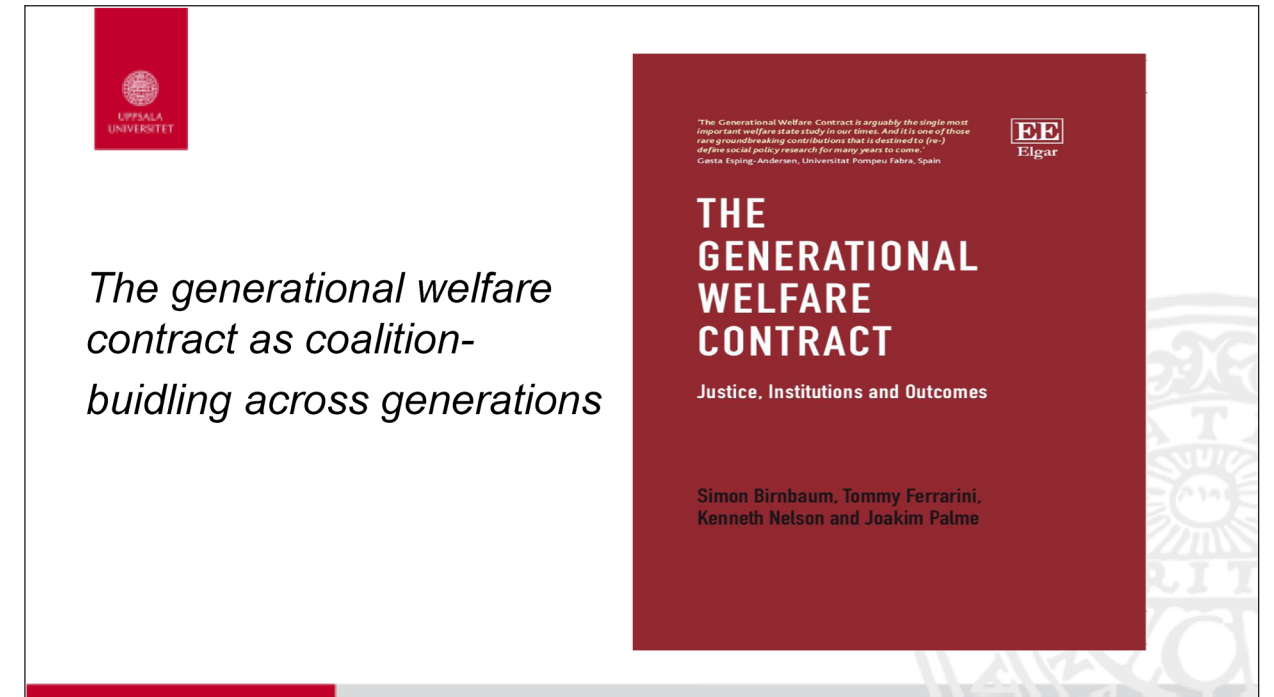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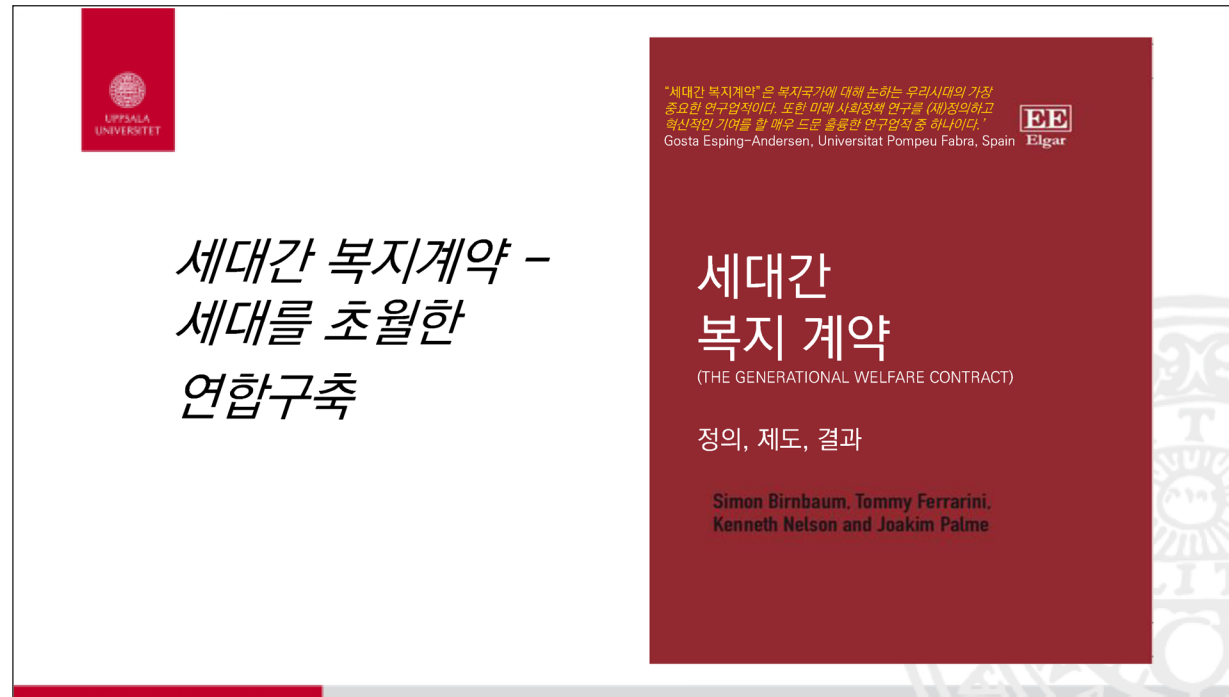
사회적 보호의 목표

- 사회보험: 질병, 실업, 노령
- 안전망: 보험이 없는 이들을 위한 빈곤퇴치 정책
- 사회서비스: 돌봄, 출산
- 저축: 위기가 닥쳤을 때의 완충장치
- 투자: 기술 및 건강 = 인적자본
- 제도적 보완성= 이러한 정책전략들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



The ideals of social protection

- Social insurance: sickness, unemployment, old-age
- Safety-nets: anti-poverty policies for uninsured
- Social services: care and reproduction
- Savings: buffers in times of crisis
- Investment: skills and health = human capital
-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 the critical importance of combining these policy strategies



세대간 복지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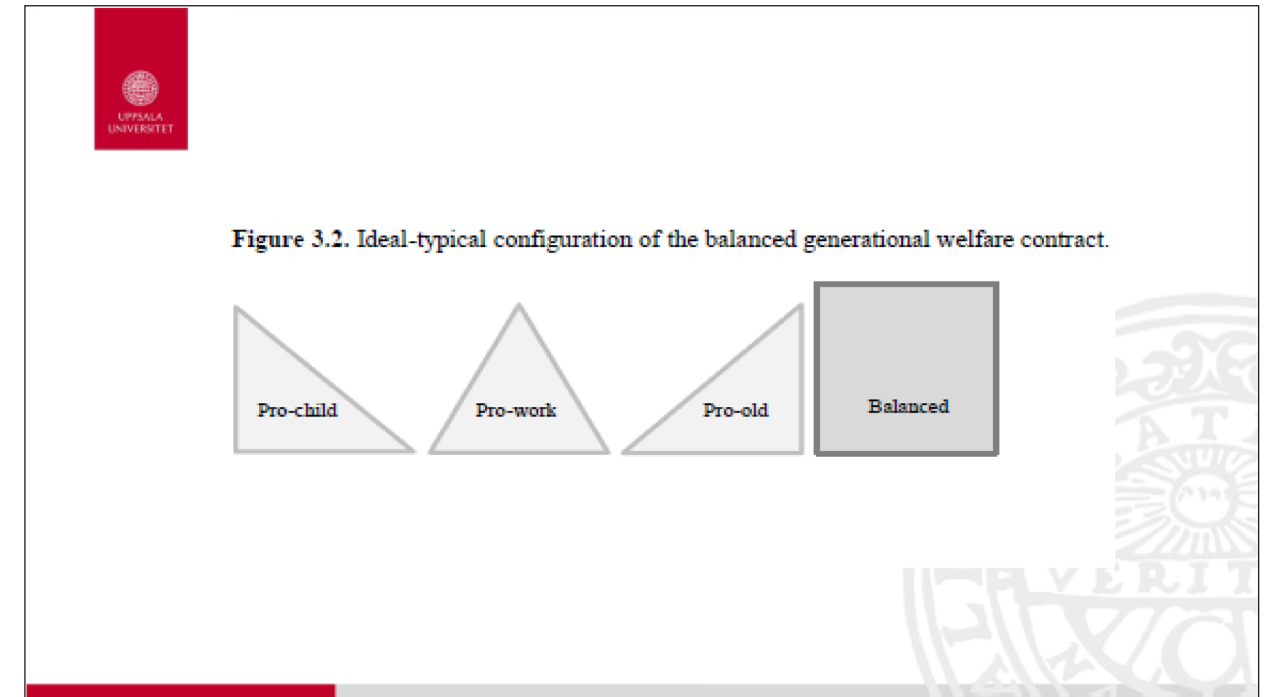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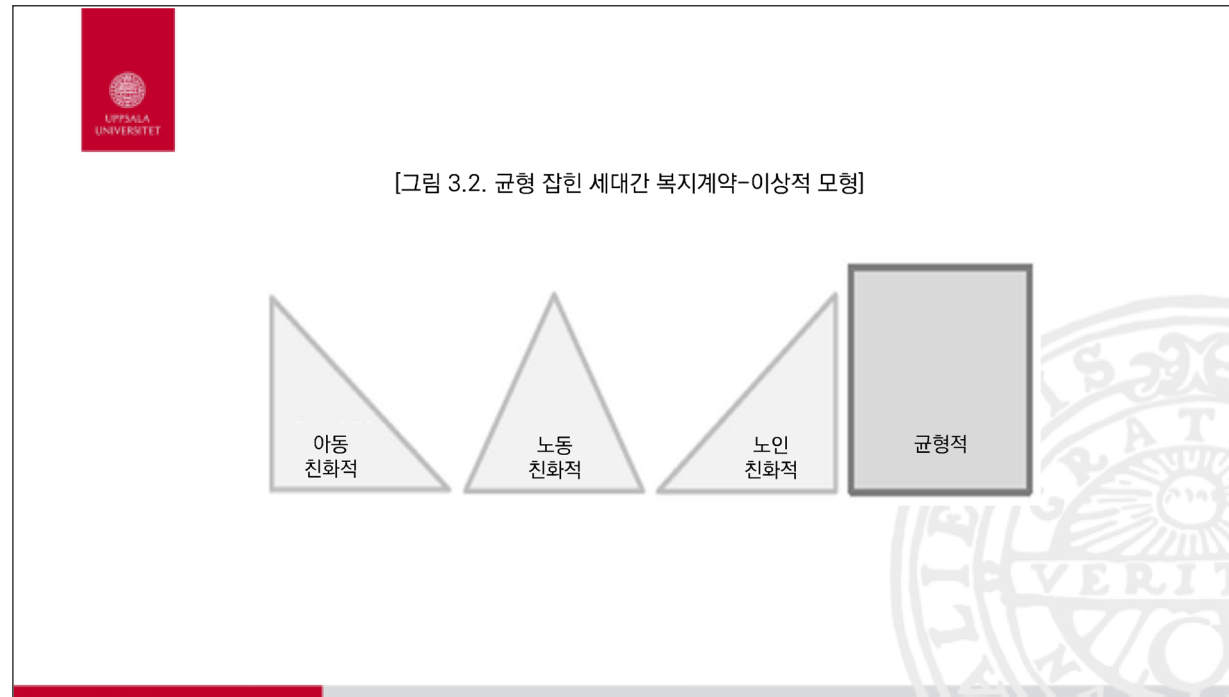
질문:

- 복지국가는 모든 연령층 위기집단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 복지국가는 각 연령별 위기집단간 실질적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는가?
- 복지국가는 연령 집단 간 관계, 신뢰, 연대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The Generational Welfare Contract

The questions?

- Can welfare states improve living conditions for all age-related risk groups?
- Can welfare states prevent substantial inequalities between age-related risk groups?
- Can welfare states support relations of trust and solidarity across groups over time?



비교연구의 결과:

모든 연령층에 대해 균형적 보호가 이뤄지면 세대간 정치에서
포지티브섬(Positive-sum) 해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 전 연령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보편복지 제공
- 이는 결과론적으로 불평등을 낮춤
- 지원 방안
 - 상호이익을 위한 세대간 협력
 - 전 연령 그룹간 평등한 관계구축
 -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
 - 사회적 신뢰

Empirical findings from comparative research:

Positive-sum solutions in generational politics are more likely when protection is balanced:

- Provide more evenly distributed protection across different stages of life - advantageous for all
- Associated lower inequalities
- Supporting:
 - intergenerational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
 - relational equality between age groups
 - justice for future generations
 - social trust



‘보편주의’의 개념

네가지 측면의 보편주의:

- **포용(Inclusion):** 공식적으로 누가 사회적 프로그램에 포함되는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조건의 열린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개념
- **급여(Benefits):** 사회내 모든 집단에 충분한 사회적 급여가 골고루 제공되고 있는지, 급여가 부족해 사적 수단에 의존해야 하는 집단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
- **재원조달(Financing):** 사회적 프로그램을 위해 공공 또는 민간으로 부터 재원조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 **공급(Provision):** 서비스 제공 및 보험체계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들이 공공주체인지, 시장기반 또는 자발적/비영리적 주체인지에 대한 개념



The concept of ‘universalism’

Four dimensions of universalism:

- **Inclusion**, referring to who is formally included in social programs and whether they are open to all citizens on the same conditions
- **Benefits**, referring to whether social benefits are seen as adequate by all groups in society or if some groups choose to complement benefits with private solutions
- **Financing**, referring to whether social programs are financed by public or private means
- **Provision**, referring to who is providing services or administering insurance systems and whether these actors are public, market-based, or voluntary/non-profit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범위와 적정성

스웨덴 사례에 대한 고찰



Coverage and adequacy of social protection over the life cycle

Reflections on the Swedish case

스웨덴에서의 보편주의 개념변화(1990-2019)

	포용성	재원조달	공급	혜택
사회보험	지속	약간 감소	감소	감소
연금	지속	약간 감소	감소	감소
가족정책	확대 (보육)	확대	감소	확대(보육), 복합(부모보험)
보건의료	확대	지속	감소	복합

Changes in universalism in Sweden (1990-2019)

	Inclusion	Financing	Provision	Benefits
Social insurance	constant	slightly reduced	reduced	reduced
Pensions	constant	slightly reduced	reduced	reduced
Family policy	extended (childcare)	extended	reduced	extended (childcare), mixed (parental insurance)
Health care	extended	constant	reduced	mixed

스웨덴의 코로나19

- 2020년 봄 스웨덴의 공식 코로나19 사망자수는 유럽 평균보다 높음
- 2020년 나머지 기간의 공식 사망자 수는 유럽에 비해 낮음
- 2020년의 초과 사망률(excess mortality)은 유럽평균보다 낮음
- 2020년 2/4분기의 GDP 하락율은 급격 했지만 유럽 평균치 보다는 낮았음
- 고용 하락, 실업률 증가
- 광범위한 규제는 있었으나, 대대적인 봉쇄조치는 없었음

Covid-19 in Sweden

- Registered death toll from COVID-19 was higher in Sweden than EU average during the spring of 2020
- Registered death toll lower in EU comparison during rest of 2020
- Excess mortality 2020 below EU average
- Drop in GDP was dramatic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but much smaller than the EU average
- Employment levels decreased, unemployment rates increased
- Broad restrictions but no massive lockdown



스웨덴의 사회적 보호대책

개괄:

- 사회적 보호 및 포용제도(inclusion scheme)에 많은 일시적 변화가 생김: 복지급여 수준 향상 (세부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 일자리 유지 제도 대폭확대: 단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비용 최대 75% 지원; 표준 근로시간에 대한 최대 80% 지원
- 고용주는 거시적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재정난을 피하기에는 역부족
-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보조금 및 공제 혜택



Social protection measures in Sweden

The broad picture:

- Many **temporary** changes in the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schemes: *more generous benefits (more details in coming slides)*
- Major extensions to job retention schemes were introduced with financial support of 75% of wage costs for short-time work up to 80% of the normal working hours
- Employers receive support irrespective of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but have to victim of temporary financial challenges due to COVID-19 pandemic
- Major subsidies and credits to firms



실업급여

- 스웨덴은 2중 구조의(two-tier) 실업급여 체계를 갖추: 소득비례 급여(earnings-related), 기초 정액급여(flat-rate)
- 급여 상한선 및 기초급여 수준 상향, 6일간의 대기기간 폐지, 자격조건 완화
- 신규 수급자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업보험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고용인, 피고용인,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호대책)



Unemployment benefits

- Sweden has a two-tier unemployment benefit system with earnings-related benefits constituting the first tier, and flat-rate basic benefits constituting the second tier
- Maximum and basic benefits were raised, the 6 waiting days were abolished, and the qualifying conditions were relaxed.
- 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 also received an additional support to handle the inflow of new members
(Job protection provided through support to the employers,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상병수당(Sickness benefits)

- 질병요양수당 확대(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 상병수당 수령을 위해 하루 대기하던 것을 변경하여, 첫번째 주의 상병수당 20%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해줌.
-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기한을 일주일에서 2-3주로 연장함.



Sickness benefits

- Disease carrier allowance extended (seldom used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 One-day waiting period for sick pay was changed to a deduction corresponding to 20% of the first weekly sick pay
- Medical certificates only after two/three weeks instead of one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 아픈 자녀 치료를 위한 일시적 육아휴직:
 - 자녀가 심각하게 아파 코로나19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고 유치원이나 학교를 갈 수 없는 경우를 위해 확대
 -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또는 유치원이 폐쇄되어 자녀가 등교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
-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일시적인 주거수당 확대:
한달 표준 주거수당의 25%를 추가적으로 지급



Support to families with children

- Temporary parental benefits for sick children:
 - extended if a child is or has been very seriously ill and needs to be protected from COVID-19 and subsequently cannot attend pre-school or school
 - extended to also cover situations in which a child is enrolled in a pre-school or school that is closed due to conditions related to the pandemic
- Temporary increase of housing allowan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extra monthly amount of 25% of the regular housing allowance



영향 I

- 스웨덴은 원칙적으로 유치원/학교를 폐쇄하지 않음
- 가족의 소득보호
- 사회보험의 보장범위와 적정성(adequacy) 기준 개선
- 임시대책으로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됨
- 모든 그룹에 대한 급여 수준의 적정성이 개선됨



Impact I

- Pre-schools/schools in principle not closed in Sweden
- Incomes of families protected
- Measures are improving the coverage and adequacy of social insurance
- Marginal groups on the labour market better covered under the temporary rules
- Benefit adequacy is better for most groups



영향 II

- 실업급여 수령자 수 1/3 증가
- 약 60만명의 근로자가 단기 일자리 유지 프로그램 신청
- 수천명이 질병확산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특별급여 신청
- 사회적 보호분야의 정책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음. 사회적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2020년의 수령자 수는 증가하지 않음



Impact II

- Number of people in receipt of unemployment benefits increased by 1/3
- Large number of applications for short-time job retention involving almost 600 000 employees.
- Thousands of applications for special benefits to prevent or protect from spread of disease
- Policy responses in the area of social protection area have been reasonably successful in buffering the number of people receiving social assistance, number did not increase during 2020

보편주의의 변화: 스웨덴 에서의 코로나19

	포용성	재원조달	공급	혜택
사회 보험	확대	확대	지속	확대
연금	지속	지속	지속	지속
가족정책	지속	확대	지속	확대
보건의료	지속	확대	지속	복합

Changes in universalism: Sweden under the Covid-19 pandemic

	Inclusion	Financing	Provision	Benefits
Social insurance	extended	extended	constant	extended
Pensions	constant	constant	constant	constant
Family policy	constant	extended	constant	extended
Health care	constant	extended	constant	mixed

여전한 사회보호 사각지대와 이후 대책

- 실업보험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 정식 등록된 실업자 중 1/3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함
- 팬데믹 기간 동안 노숙인 보호를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이들이 계속 사회적 포용정책의 밖에 머무르게 될 것은 자명
- 코로나 기간 동안의 임시 대책이 스웨덴 정부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장혜택의 격차와 적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Remaining gaps in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and beyond

-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still lack coverage. Only around one third of the registered unemployed received an unemployment benefit
- Efforts to protect homeless people during the pandemic but evident that these groups continue to fall outside of the scope of social inclusion policies
- Great potential in some of the measures to solve some of the old problems of gaps in the coverage and adequacy of the Swedish social protection system



스웨덴 코로나19 경험의 잠정적 교훈:

- 팬데믹은 장기요양과 보건의료의 결함을 드러냄: 연구와 정책입안 노력에 더 많은 관심 필요
- 임시로 설계된 대응책도 기존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영구적 기능을 촉진할 수 있음.
- 상병수당을 받기위한 대기기간은 문제가 있음: 장기요양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치명적인 건강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
- 비상대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수급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Preliminary lessons from Swedish Covid-19 experience

- Pandemic revealed deficiencies in long-term care and healthcare: in need of increased attention both in research and policymaking
- Policy responses have temporary design but may fill important gaps in policy and motivate a more permanent approach
- Waiting days for sick pay is problematic: in long-term care sector vulnerable people risk being exposed to fatal health risks
- Emergency measures might have unintended and negative effects on labour supply post-Covid-19



팬데믹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Q.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도 회복력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 방법은?

- 기존 정책의 회복력을 높여 다음 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
- 특정 환경에 맞춤형 정책변경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가대책을 준비하라
- 장기적인 영향도 잊지 말 것: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개별적인 관점, 전 생애주기와 모든 세대의 관점, 시스템적 관점(보건의료 및 연금)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라!



The pandemic as a stress test

How to make socio-economic conditions resilient when next crisis comes?

- Make policies resilient now, so that they can have a good impact when next crisis comes!
- Be prepared to add extra measures to adapt the policy response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 Do not forget about the long term: resilience must be combined with sustainability
- Sustainability matters: from an individual perspective – over the life course and across generations – and from a systemic perspective (health care and pensions)
- Be prepared to do whatever it takes!



외생적 충격과 사회적 보호의 가치

위기가 닥쳤을 때:

- 대공황 – 실업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면서 정치적 문제임.
- 2차 세계대전 – 국민국가 개념 발생, 모두에 대한 보호
- 석유파동 – 사회 및 경제정책의 결합
- 철의장막 붕괴 – 유럽 통합을 '생각할 수 있게 됨'
- 대침체 – 자동 균형, 국가
- COVID-19 – 다른 이들을 보호해야 자신(개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위기는 '혁신의 어머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



Exogenous shocks and deservingness of social protection

When the crisis hits:

- **The 'Great Depression'** – the unemployment problem as a the social question and political problem
- **World War II** – the nation state and protection for all
- **Oil-crises** – combin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 **Downfall of the 'Iron Curtain'** – reunification 'thinkable'
- **The 'Great Recession'** – automatic balacing, the state
- **Covid-19** – *the need to protect all to protect yourself*
Crisis as the 'mother of innovations'?
Think the 'unthinkable'!



'파괴적' 변화를 위한 '건설적' 정책

목표:

사회적 포용 –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자본 – 사회내의 다양한 그룹간 사회적 자본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 – 협력적인 분위기 구축

사회적 발전 – 변화는 인간의 환경과 안보를 개선해주겠다는 약속



'Destructive' transformations demands 'constructive' policies

Goals:

Social inclusion – leaving no one behind

Social capital – bridging social capital between different groups in society

Social cohesion – to create a climate of cooperation

Social progress – to see change as a promise for improving human conditions and security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제기된 사회적 질문과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민주적 정책입안을 통한 해법제공에
실패 한다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잠식될 것.



If democratic policymaking fails
to address social ques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beyond,
it may erode the democratic order itself



참고:

- Birnbaum, Simon, Tommy Ferrarini, Kenneth Nelson, and Joakim Palme. 2017. *The Generational Welfare Contract: Institutions, Politics and Outcomes*. Cheltenham: Edward Elgar.
- Olafsson, Stefan, Mary Daly, Olli Kangas, and Joakim Palme (eds.). 2019. *Welfare and the Great Recession A Comparative Stu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omqvist, Paula and Joakim Palme. 2020.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The Swedish Case beyond 1990.' *Social Inclusion* Vol. 8(1):114-123.



References:

- Birnbaum, Simon, Tommy Ferrarini, Kenneth Nelson, and Joakim Palme. 2017. *The Generational Welfare Contract: Institutions, Politics and Outcomes*. Cheltenham: Edward Elgar.
- Olafsson, Stefan, Mary Daly, Olli Kangas, and Joakim Palme (eds.). 2019. *Welfare and the Great Recession A Comparative Stu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omqvist, Paula and Joakim Palme. 2020.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The Swedish Case beyond 1990.' *Social Inclusion* Vol. 8(1):114-123.

[메인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좌 장 조흥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 론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박능후 |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이혜경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前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대엽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정표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좌 장

조 흥 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前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 前 대학정책학회 회장
- 前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토 론

김 용 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명예교수
- 前 민주연구원(민주당) 원장
- 前 대한민국 제19대국회(보건복지위원) 국회의원
-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박 능 후 | 경기대학교 교수

- 前 보건복지부 장관
- 前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이 혜 경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前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前 한국 여성학회장
- 前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前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조 대 업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現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現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 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민생분과의장)

최 정 표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前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前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 前 일본 도쿄대학 경제학부 객원교수

[세션 I]

주요국의 COVID-19 대응 및 with-COVID 정책

좌 장 **강신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브루노 팔리에** |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
엘린 에릭센 외데가르드 | 노르웨이 웨스턴 대학
KINDknow 연구소 교수

토 론 **구인회** | 서울대학교 교수
박경숙 | 경기대학교 교수
이상은 | 숭실대학교 교수
이의경 | 성균관대학교 교수/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병호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대 원장
최은영 | 충북대학교 교수



좌 장

강 신 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前 통계청 청장
- 前 국제노동기구(ILO) 초빙연구원
- 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발 표

브루노 팔리에 |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

- 前 공공정책평가연구소(LIEPP) 소장

엘린 에릭센 외데가르드 | 노르웨이 웨스턴 대학 KINDknow 연구소 교수

- 前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부학장
- 前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정교수
- 前 노르웨이 베르겐 시 유치원 교사 및 원장

토 론

구 인 회 | 서울대학교 교수

- 前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 前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前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박 경 속 | 경기대학교 교수

- 前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前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회장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前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이상은 | 숭실대학교 교수

- 現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 위원장
- 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보장분과 위원장
- 前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 前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이 의 경 | 성균관대학교 교수

- 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前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 前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회장

최 병 호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22대)
-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소장
- 前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최 은 영 | 충북대학교 교수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세션 I]

발표 1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사회정책

브루노 팔리에 |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사회정책

브루노 팔리에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

SciencesPo 
Centre d'études européennes
et de politique comparée
Laboratoire interdisciplinaire
d'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Social policies in times of the post-covid-19 new normal

Bruno Palier

SciencesPo 
Centre d'études européennes
et de politique comparée
Laboratoire interdisciplinaire
d'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개요

- I. 위기는 새로운 세상을 드러내고 촉진하는 역할을 함: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및 서비스의 부상), 고용/노동시장의 양극화,
숙련 노동자와 비 숙련 노동자 간 더욱 커지는 격차
- II. '필수(essential)' 서비스의 가시화
- III. 복지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OUTLINE

- I. Crisis as a revelator and accelerator of the new world: digitalization (rise of the platform economy, services), jobs and labour market polarization, increasing chasm between skilled and non skilled workers.
- II. But also visibilization of “essential” services.
- III. What role for the Welfare State?

복지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청중들께 드리는 과제

시나리오 하나: 공공부채의 증가, 코로나 위기 이후 복지국가 후퇴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고 더 나은세상, 더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국민의 기술 숙련도를 높여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비하고 사회투자 일자리 및 서비스 육성 필요

사회투자 일자리의 집단적 가치 인식

→ 대면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소위 저숙련, 비생산적인 직업)
평등(equality), 품질(quality), 이동성(mobility)에 기반한 새로운 복지 체계 구축
특히 교육, 훈련, 보건의료, 돌봄 등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 체계

WHAT ROLE FOR THE WELFARE STATE?

Take Home message

One scenario: increase in public debt, retreat of the Welfare State after the Covid crisis.

But it can also be an opportunity to organize the new world and provide the necessary policies to make it better, safer and fairer.

=> Increase the skill of the population, cope with labour market polarization and develop social investment jobs and services.

Recognize the collective value of Social investment jobs => offer better condition to the interpersonal services (so-called low skilled, non productive jobs).

A new welfare system, based on equality, quality and mobility. Notably providing Universal public services in education, training, health and care

I. 코로나 위기는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을 가속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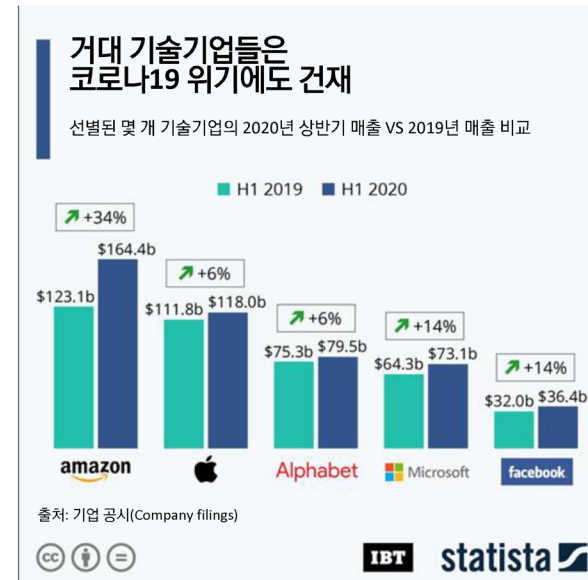
디지털화된 지식기반 경제

I. The Covid Crisis accelerated the move towards the New world:

A digitalized knowledge-based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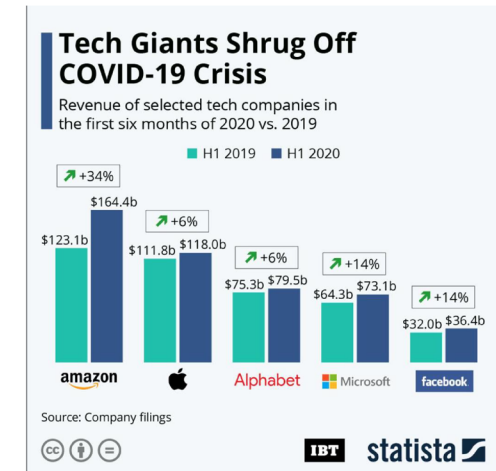
코로나19 위기 동안
디지털화, 자동화, 양극화가 지속됨

코로나19 위기 및 봉쇄는 1990년대
기술변화로 촉발된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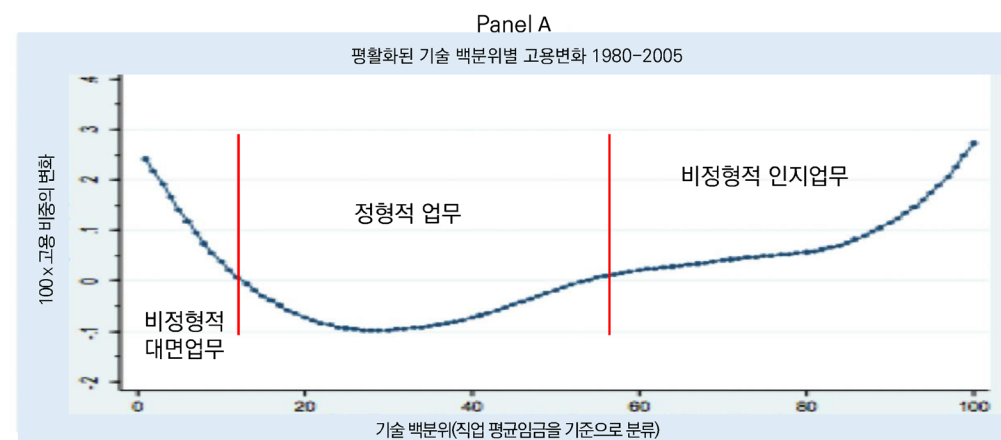


During Covid Crisis,
digitalization, automation and
polarization conti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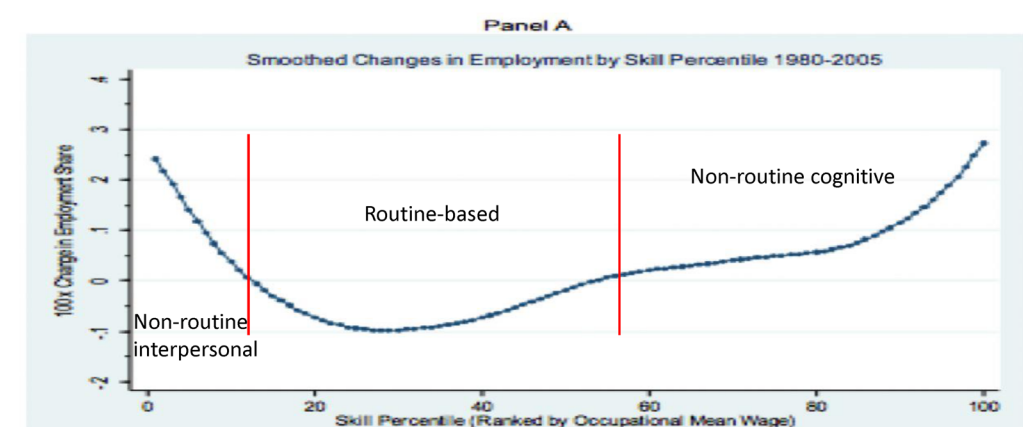
Covid crisis and especially locked
down have accelerated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s
due to technological change
at work since the early 1990s



일자리 양극화, 업무 편향적 기술변화 (오토(Autor) et al. 2003)



Job polarization, task biased technological change (Autor et al. 2003)



I. 코로나 위기로 노동시장에서 드러난 것은? 양극화의 심화

- 보수가 가장 높은 직업 (비정형적 인지업무)은 원격업무 형태로 국한되어 지속될 수 있었음. 이들의 수입(연금)은 전혀 감소하지 않음
- 제조/서비스직(정형적 업무에 더 치중)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무시간, 계약기간 등이 더 짧아 졌고 임시 휴직도 늘어남.
- 운송, 유통 등 저임금 서비스직(비정형적 대인 서비스)은 봉쇄기간동안 일선 현장에 남아 일해온 소위 “필수 ” 직업의 대부분을 차지함.

I. What does the Covid crisis reveal on the labour market? More polarization

- The best paid jobs (ie. non-routine cognitive) have been able to remain confined and to continue teleworking. They have seen no decrease in their income (nor have the pensioners)
- Some job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s (more routine-based) have experienced more than others short-time working, end of short term contracts or layoffs,
- Low-paying jobs in services to others, transport and distribution (ie. non-routine interpersonal services), have accounted for many of the so-called “essential” jobs, which have remained on the front line during confinement.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Daniel Garrote Sanchez
Nicolas Gomez Parra
Caglar Ozden
Bob Rijkers
Mariana Viollaz
Herman Winkler

세계은행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좋은 직업

- **소득:** 고소득 국가의 소득 상위 10분위 집단 중 거의 80% 근로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함
- **기술:** 숙련 근로자의 재택근무 가능성이 더 높음.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재택근무 가능성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재택근무 가능성 추정 변수 중 교육이 많은 부분을 설명함
- **근로계약:** 임시 계약직 근로자는 출발점 부터 다른 근로자에 비해 취약하며, 재택근무 가능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낮음
- **CCL:** 코로나19가 노동시장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보호가 취약한 집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Who on Earth Can Work from Home?

Daniel Garrote Sanchez
Nicolas Gomez Parra
Caglar Ozden
Bob Rijkers
Mariana Viollaz
Herman Winkler

World Bank

Who on earth can work at home? The best jobs

- **Income:** At the top income decile in high-income countries, almost 80 percent of the jobs can be performed from home.
- **Skill:** Skilled workers are more likely to have jobs amenable to home-based work. Workers with tertiary education are much more likely to be able to work from home in all countries and regions. Education explains a large share of the variation in the ability to work from home
- **Job contract:** Workers on temporary contracts, who are more vulnerable to start with, are less likely to have jobs that can be performed from home.
- **CCL:** COVID-19 is likely to exacerbate labor market inequality and will disproportionately impact those least protected.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가장 고통받은 분야는?

Which sectors suffered the most from the crisis?

표 1: 위기의 근로자들: 분야별 전망SECTORAL PERSPECTIVE

경제분야	위기로 인한 현재의 경제 생산성영향	기초선 고용현황(Baseline employment situation) (코로나19 이전 2020년도 글로벌 추정치)			
		고용수준 (000s)	전세계 고용에 서의 비중 (퍼센트)	임금비율(분야의 월평균 소득/평 균 총소득)	여성비중 (퍼센트)
교육	낮음	176560	5.3	1.23	61.8
인간건강 및 사회사업 활동	낮음	136244	4.1	1.14	70.4
공공행정, 국방, 필수 사회보장	낮음	144241	4.3	1.35	31.5
공공시설	낮음	26589	0.8	1.07	18.8
농업, 산림업, 어업	다소 낮음*	880373	26.5	0.72	37.1
건설	중간	257041	7.7	1.03	7.3
금융 및 보험활동	중간	52237	1.6	1.72	47.1
광산 및 채석	중간	21714	0.7	1.46	15.1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기타 서비스 업종	다소 높음*	179857	5.4	0.69	57.2
운송, 창고, 통신	다소 높음*	204217	6.1	1.19	14.3
숙박, 식품 서비스	높음	143661	4.3	0.71	54.1
부동산, 비즈니스, 행정활동	높음	156878	4.7	0.97	38.2
제조업	높음	463091	13.9	0.95	38.7
도소매, 무역; 차량 및 오토바이 수리	높음	481951	14.5	0.86	43.6

출처: UN 정책 보고서(Policy Brief): COVID-19와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 and COVID-19), 2020년 6월; ILO 통계자료

TABLE 1: WORKERS AT RISK: SECTORAL PERSPECTIVE

Economic sector	Current impact of crisis on economic output ↓	Baseline employment situation (global estimates for 2020 prior to COVID-19)			
		Level of employment (000s)	Share in global employment (percent)	Wage ratio (av. monthly sector earnings/av. total earnings)	Share of women (percent)
Education	Low	176560	5.3	1.23	61.8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Low	136244	4.1	1.14	70.4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Low	144241	4.3	1.35	31.5
Utilities	Low	26589	0.8	1.07	18.8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Low- Medium*	880373	26.5	0.72	37.1
Construction	Medium	257041	7.7	1.03	7.3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Medium	52237	1.6	1.72	47.1
Mining and quarrying	Medium	21714	0.7	1.46	15.1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and other services	Medium- high*	179857	5.4	0.69	57.2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Medium- high*	204217	6.1	1.19	14.3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High	143661	4.3	0.71	54.1
Real estate; business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High	156878	4.7	0.97	38.2
Manufacturing	High	463091	13.9	0.95	38.7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High	481951	14.5	0.86	43.6

Source: United Nation, Policy Brief: The World of Work and COVID-19, JUNE 2020; and ILO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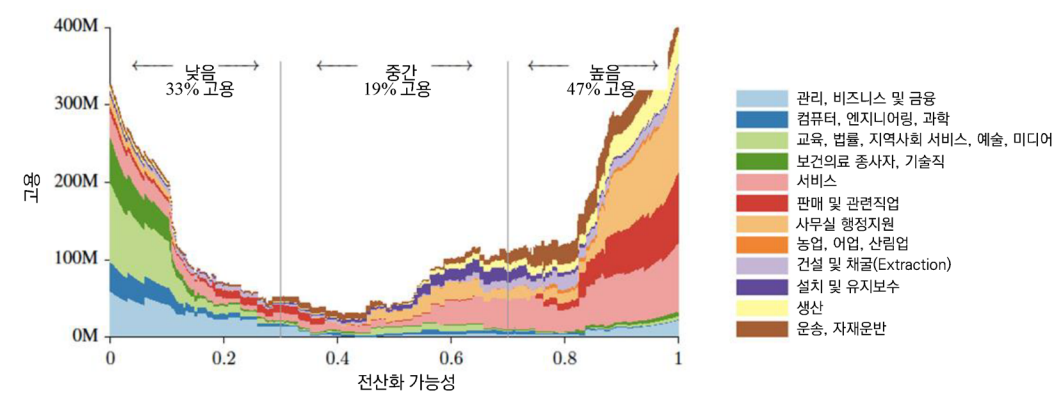
가장 위험에 처한 분야

- 관광, 숙박, 식품
- 부동산
- 제조업
- 도소매업
- 수리업무 =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프레이 & 오스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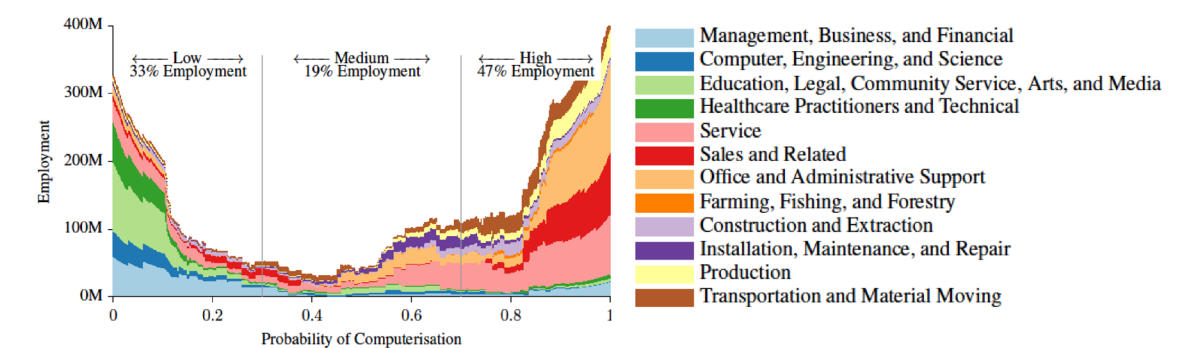
Sectors most at risk

- Tourism, accommodation, food
 - Real estate
 - Manufacturing
 - Wholesale and retail
 - Repair
- = Amongst the sectors most susceptible of losing jobs because of automation (according to Frey and Osborne)

전산화에 관한 프레이 & 오스본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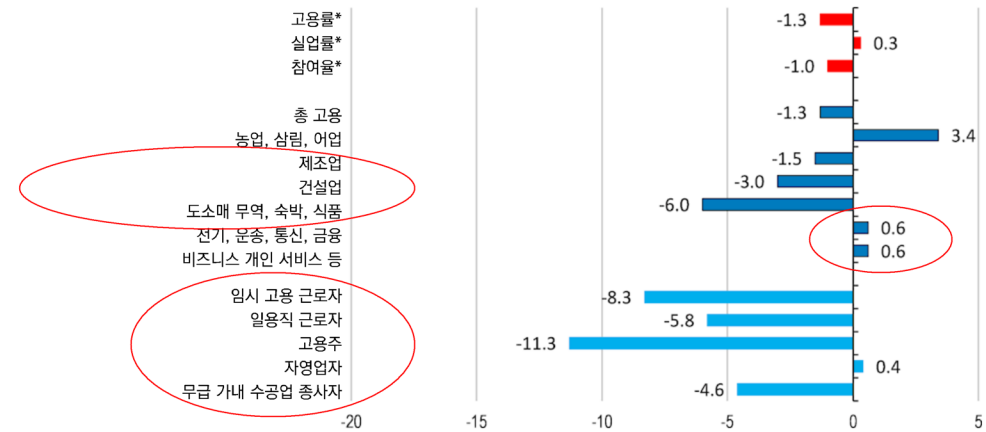


Frey Osborne's projections on the probability of computerisation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 영향: 양극화 심화

그림 1.3. 서비스 및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률 하락
전년대비 백분율 변화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020년 6월



출처: 통계청, 2020 OECD 한국경제 검토 보고서

Jobs impact of Covid In Korea: Further polarization

Figure 1.3. Employment drops in services and among non-regular workers
Year-on-year percentage change (unless otherwise specified), June 2020



Source: Statistics Korea, in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II. 재택근무 근로자; 실직자;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 필수직업 »

-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모니터링(2020년 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종사자 등 여전히 일선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꺾아보면, 운송, 농업, 필수 공공 서비스직 노동자들로, 이들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니즈를 충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전세계적으로 약 1억 3천 6백만 명이 인간건강 및 사회사업 관련활동에 종사함. 이들
중에는 간호사, 의사 및 기타 의료인력,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사회사업 인력, 세탁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지원인력 등이 포함 됨. 이들은 근무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약 70%가 여성임.”
- 일선 현장의 서비스 직업: 보안 (경찰, 소방수...), 물류 (전기, 수도, 배달, 운송) 대면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돌봄, 교육)
- 이번 위기 기간동안 일선현장에서 활약한 필수직종 종사자들 대부분은 지난 30년간 저임금, 고용불안
등 더욱 악화되어가는 노동환경에서 일해 옴.

II. Some were working from home, some lost their jobs, some had to go to work: the « Essentials »

- ILO monitor on the Covid Crisis (Spring 2020): “Many of those still working, especially health workers, are at the frontline, fighting the virus and making sure that people have their basic needs met, including workers in transport, agriculture, and essential public services. Globally, there are 136 million workers i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including nurses, doctors and other health workers, worker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nd social workers, as well as support workers, such as laundry and cleaning staff, who face serious risk of contracting COVID-19 in the workplace. Approximately 70 per cent of jobs in the sector are held by women”.
- Services sectors on the frontline: Security (police, firemen...), logistics (electricity, water, delivery, transportation) and services to others (health, care, education)
- Many of those at work, who staid on the frontline, are those having low paid precarious jobs that have been on the rise over the last 30 years

II. 노동시장의 하단에서 커지고 있는 «필수직업»의 규모

노동시장 양극화 조사문헌에 따르면 소위 ‘비숙련’ 또는 ‘비생산적’이라 불리는 대부분 보수가 낮은 비정형적 대인 서비스 직업이 증가 추세임

이러한 대면 업무직의 성장은 중개 플랫폼과 부분적으로 연계됨:

물류(아마존), 운송(우버), 식당&호텔 (부킹닷컴, 트립어드바이저), 가사 도우미, 개인생활 도우미(태스크 래빗, 유팔라...).

이런 직업들은 저임금, 위장자영업, 단기 시간제 계약직 등 사회적 보호가 약한 직업과 관련됨

교육,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 (비 생산적이라 간주됨, 보물(Baumol)의 비용질병 이론 참조)

II. The « Essentials » are occupying jobs on the rise at the lower end of the labour market

Labour market polarization literature identifies among the jobs that continue to develop a lot of badly paid, so-called "unskilled" or "non-productive" jobs in non-routine interpersonal services.

These are interpersonal, face-to-face jobs whose development is partly linked to intermediation platforms: logistics (amazon, deliveroo), transportation (uber), restaurant, hotels (bookings, tripadvisor), home helpers, personal services (TaskRabbits, Yoopala...).

These jobs are associated with low pay, bogus self-employment, or short-term contracts, part-time work and low social protection.

Also: Education, health and care (supposedly non productive, See Baumol cost disease)

이들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 대부분 여성이 종사하는 직업 (출산기능 관련), 과거에는 무급(가정내의 노동)
- 대면 서비스직은 생산성 증가가 쉽지 않음(보물의 비용질병 이론)
- + 그러나, 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동과 정책이 계속 늘어남 (팔리에(Palier), 쉴렌(Thelen)):
- 외주
- 노동시장 자유화 바람을 타고 이런 일자리들이 창출됨(더 낮은 보수, 취약한 보호체계), 재정 및 사회적 기여금 공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에 대한 공제)
- 경쟁력 전략: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값싼 노동환경 구축 – 예로 헤어 드레서 비용이 낮다면 전반적인 임금 안정화가 이뤄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 => 이 모든 정책이 서비스직임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일조함
 - 그러나 이들은 생존과 기능을 위한 **필수직종**
 - 상당 부분이 사회투자 일자리가 많음.

Why are they so badly paid?

- Tasks performed mostly by women (reproduction), previously unpaid work (at home)
- Interpersonal services, supposedly not susceptible of productivity gains (Baumol cost disease)
- + Cumulation of action and policies aimed at cheapening their cost (Palier, Thelen):
- Outsourcing
- Creation of these jobs has been supported by liberalization of the labour markets (cheaper pay, less protection), and specific fiscal and social contribution exemptions (to those employing these services rather than to those providing them directly)
- A competitiveness strategy: create a cheap environment for the protected productive ones – if the hairdresser is not expensive, then general wage moderation, which is good to competitiveness...
- => All these policies contributed to keep these services as cheap as possible
 - BUT they are **Essential** to our survival and functioning
 - Many are social investment jobs

뉴 노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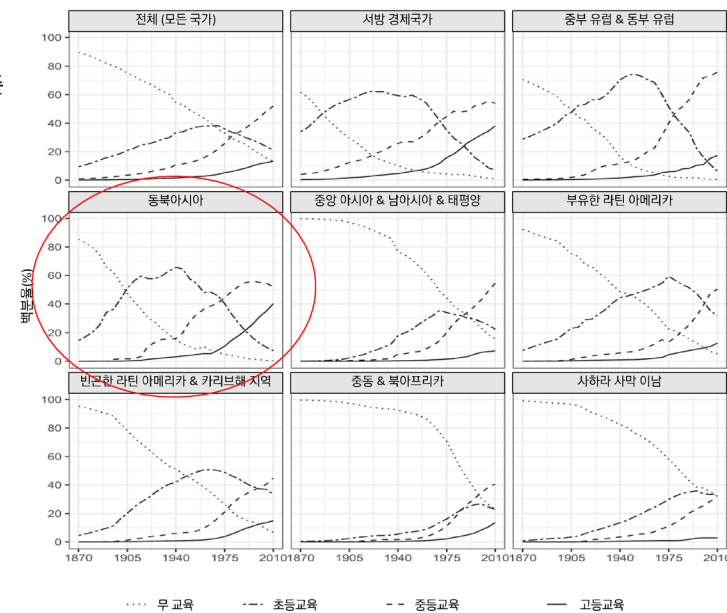
-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
-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와 연계됨
- 정형적 업무의 감소로 대표됨 (제조 및 서비스업 모두에서)
- 소득, 안정성,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기술수준에 따라 서비스직 간 격차가 커짐

The new normal?

- A polarization trend in the labour market
- Linked with the rise of the knowledge-based service economy
- Marked by the decline of routine based jobs (both in manufacturing and services)
- And increasing gaps between services jobs, based on formal skill, in terms of income, stability and quality of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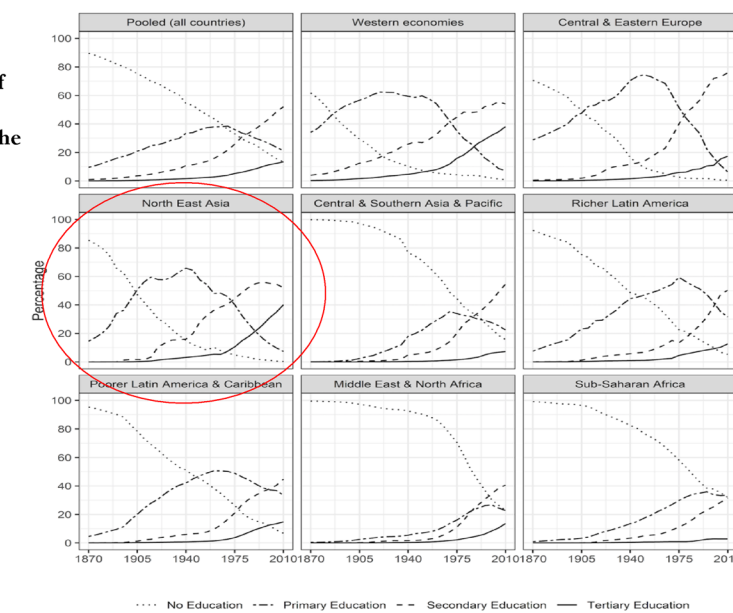
전반적인 숙련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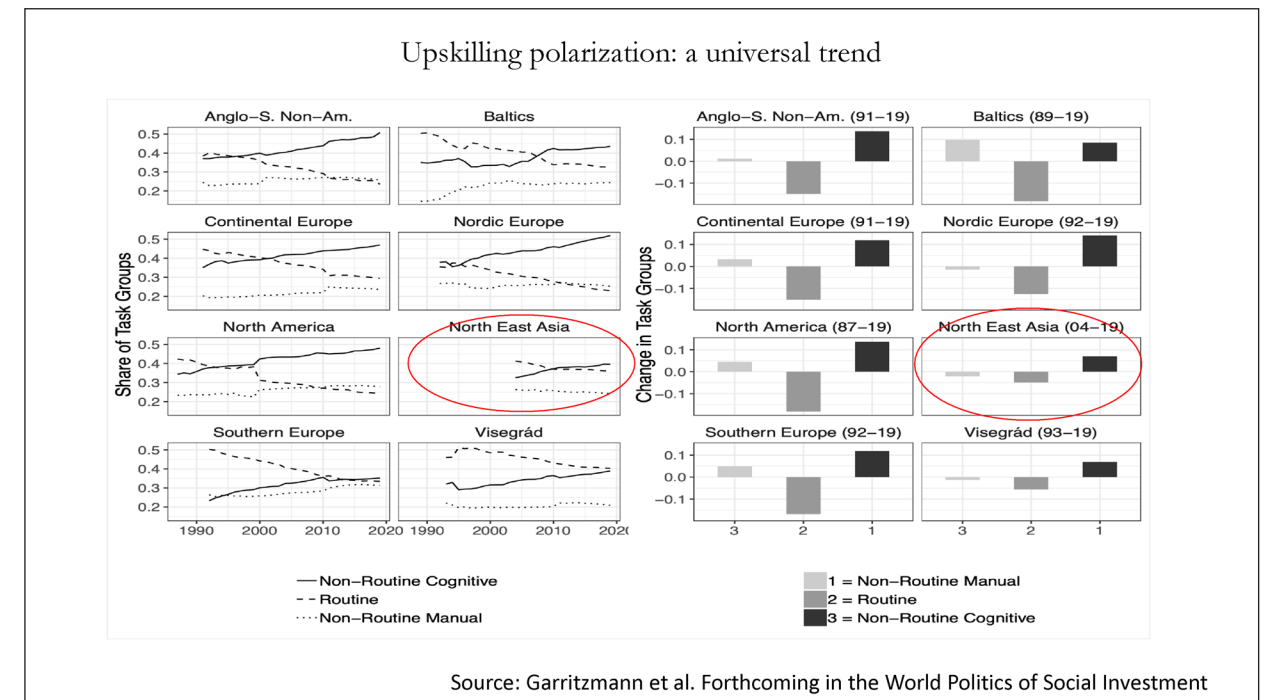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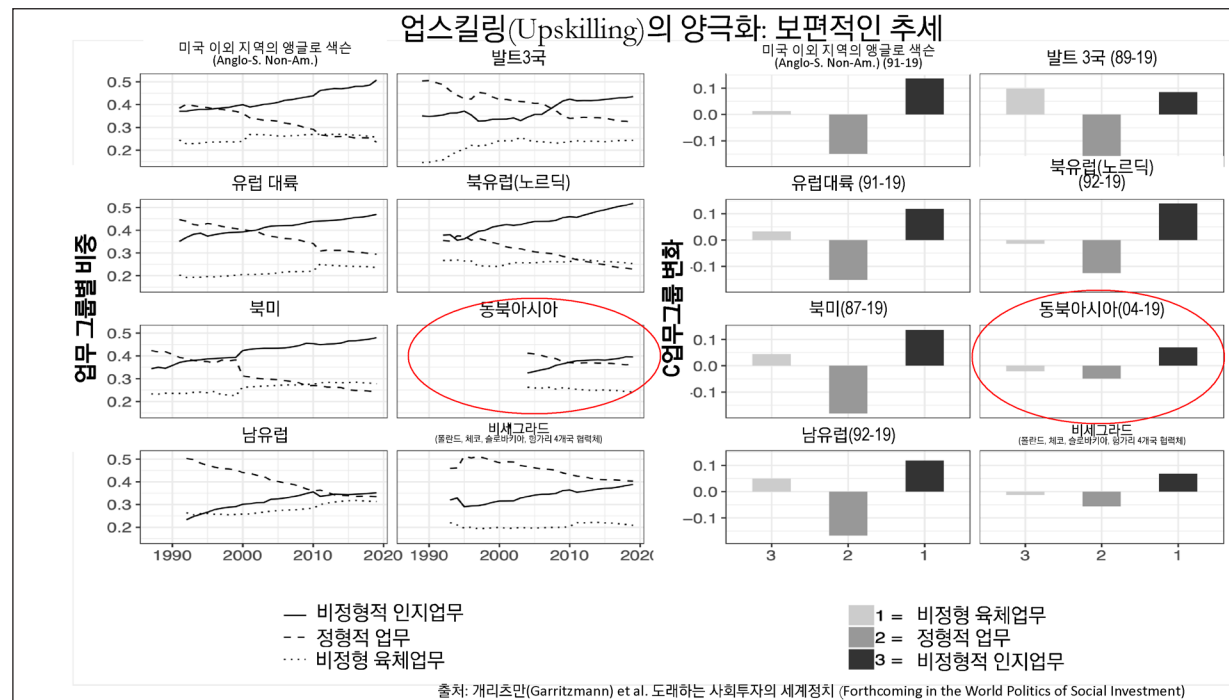
노동가능 연령
인구의 최고 수준
교육 성취도



A General increase in Skill

Highest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III. 복지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숙련 노동자 양성 (인적자본 및 인적역량 창출)
- 중급 숙련직 감소의 사회적 파급효과 완화
(소득안정 및 업스킬링을 위한 적극 노동시장 정책)
- 사회투자 서비스 복지 체계 확대. 보건의료, 교육, 돌봄 분야에서 사회투자직을 개발하고 가치화 함(저 숙련, 비 생산적 직업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음)

III. What role for the Welfare State?

- A. Push for more skilled workforce (creation of human capital and capabilities)
- B. Mitigate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decline in mid-skilled jobs (income security and upskilling ALMPs)
- C. Expand a Social Investment Services Welfare System. Develop and valorize social investment jobs in the health, education and care sectors (too often considered low skilled low productivity jobs)

III A. 숙련 노동자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고숙련, 역동적 서비스에 투자

-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필요성
- 인적자본 및 역량창출을 위한 포용적인(Inclusive) 사회투자
모두를 위한 기술(Skill for all):
- 모든 아동이 돌봄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 모든 학생이 성취할 수 있도록 (초등 및中等교육기관의 학생모두 해당)
-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별성을 줄이고 포용성 증대

IIIA. Continue to increase the number of skilled ones and invest in high-skilled dynamic services

- Necessary in the knowledge based economy
- Inclusive social investment in creating human capital and capabilities.
Skill for all:
- Access to childcare for all young children
- Success for all at schoo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 Be less selective and more inclusive in access to higher education

III B.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직업 종사자 보호 및 직업전환 지원

- 최신 OECD 고용전망(2020년, 제 4장)에 주목: 중급 숙련직 비중의 하락은
경력 근로자가 대체되어 일자리를 떠나서이기도 하지만, 해당 직업에
진입하는 젊은이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더 크게 기인함.
- 이는 기술 숙련도 형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III B. Protect and convert those at risks of losing jobs because of automation

- Note that according to the latest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chapter 4): the decline in the share of middle-skill employment is due
primarily to fewer younger workers entering middle-skill occupations more
than to mid-career workers being displaced and leaving them
- This re-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kill formation

III B. 자동화 대체위기 직업 종사자 보호 및 직업전환 지원

- 숙련 형성, 숙련 이동성, 소득보장의 결합
-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 중점
- 평생교육
-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직업전환을 목표로 하는 고용훈련 시스템
- 업스킬링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III B. Protect and convert those at risks of losing jobs because of automation

- Combine skill formation, skill mobilization And income security
- Especially for women, young people
- Life-long learning
- Training system aimed at organizing conversion form one sector to another
- Upskilling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C. 사회투자 서비스 복지 체계 확대

- 사회투자란 사회투자 일자리의 개발을 의미함
- 교육, 훈련, 보건의료, 돌봄 분야
- 저숙련 또는/그리고 저생산성 직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대면 서비스 직업(필수직업)의 중요성 및 종합적 유용성을 인식하고 가치화
-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보호망이 탄탄한 사회투자분야 직업 개발
- 노동시장 하단의 대면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상황을 개선하여 일자리 양극화의 영향 완화 필요

C. Expand a Social Investment Services Welfare System.

- Social investment means developing social investment jobs!
- In the education, training, health and care sectors
- Too often considered low skilled and/or low productivity jobs
- Recognise and valorise the importance and collective utility of services to others, Essentials
- Promote stable, well paid and protected jobs in the social investment sec
- This will also mitigate the impact of job polarization by improving the situation of those in personal services at the low end of the labour market

새로운 복지 체계

새로운 사회권 =

평등(Equality)

품질(Quality)

이동성(Mobility)

Gazier, Palier and Périvier, 2014년 자료를 근거로함

A New Welfare System

New Social Rights =

Equality

Quality

Mobility

Based on Gazier, Palier and Périvier, 2014

	보편적 사회권	직업적 사회권
사회적 보호 축	모든 양질의 필수 재화 및 서비스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 사회적 주거 개인 돌봄 네트워크 접근성(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교통 모두를 위한 좋은 환경	소득 안정성 및 지속성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 장애 및 실업보험, 노령연금
사회적 증진 축	개발 최저소득 보장(높은 유보임금) 교육기회 보장(유아기부터 고학년까지 양질의 평등한 교육)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전환 자신의 경력을 시작할 권리 권리의 이동성(Portability of Rights) 육아휴직 안식년, 재훈련 차별 금지법

	Universal Social Rights	Occupational Social Rights
Social Protection Pillar	ACCESS TO ALL ESSENTIAL QUALITY GOODS AND SERVICES Health care Social Housing Personal care Access to networks (electricity, water, telephone, internet) Transport Quality environment for all	SECURITY AND CONTINUITY OF INCOME Sick Pay, disability, unemployment insurance for all, Old-Age Pension
Social Promotion Pillar	DEVELOPMENT Guaranteed minimum income (high reservation wage) Education (quality and equality from early childhood to higher education) Lifelong training for all	TRANSITION Rights to start your career Portability of Rights Parental Leaves Sabbaticals, Re-training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세션 I]

발표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노르웨이 KINDknow의 대응

엘린 에릭센 외데가르드 | 노르웨이 웨스턴 대학 KINDknow 연구소 교수





Western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노르웨이 KINDknow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1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엘린 에릭센 외데가르드
노르웨이 웨스턴 대학 KINDknow 연구소 교수



Western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What should be done against Post-COVID-19? A response from KINDknow, Norway

Speech at KIHASA 51 Anniversary 2021
By/Professor Elin Eriksen Ødegaard
KINDknow Research Center, WNU, Norway



발표자료 및 스크린샷



KINDknow – 다양성 및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유치원 지식 센터

KINDknow는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전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지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질적 연구 접근법을 결합한 KINDknow의 국가간 비교연구는 유아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개요 및 각 지역의 유아교육 관행에 대한 고무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KINDknow - Kindergarten Knowledge Centre for Systemic Research on Diversity and Sustainable Futures

KINDknow generates knowledge that is locally sensitive and internationally relevant. 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s combined with qualitative, close-to-practice research approaches provide overviews over the divers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nspiring insights into local practices.

노르웨이의 코로나19 팬데믹 – 정책 및 연구 차원의 대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정보

- 노르웨이는 53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선진국
- 노르웨이는 부유국
- 정책은 정당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
- 노르웨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높음
- 공적 재원으로 국가건강보험 제도 운영
- 기대수명은 높고 교육격차는 작음

노르웨이 유치원 법 (Norwegian Kindergarten Act)은 유치원 대상 연령을 1~5세로 규정

아동은 만 1세부터 유치원에 입학할 권리가 주어짐

모든 유치원은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교육

1~5세 아동 중 92.2%가 유치원에 다님



다양성 및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유치원 지식 센터

3

COVID-19 epidemic in Norway – Distinct elements to understand policy and research response

- Norway is a prosperous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5.3 million.
- Norway is a rich country
- Policy making is negotiated between parties and often consensual in form
- Norwegian population exercises significant trust in the state
- Publicly funded national health system,
- Life expectancy is high, and the education gap is small

Norwegian Kindergarten Act. Regulates ECEC to children aged 1–5.

The entitlement to a place in a kindergarten applies to children who turn 1-year old

All kindergartens are mixed-aged

92.2% of children attend kindergarten aged 1–5



Kindergarten Knowledge Centre for Systemic Research on Diversity and Sustainable Futures,

3

사회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 – 가장 취약한 아동들과 그 가족에 대한 우려 증가

- 노르웨이는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고 해외유입을 통제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 부문의 대응 역량을 확충. 첫 정책 대응의 초점은 노령 인구와 경제적 충격이었지만, 교육 부문과 아동 청소년 영역도 일찍이 정책 대응 의제로 자리매김함.
- 최근에는 제한조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와 그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코로나 제한조치 완화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 노르웨이 총리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아동을 선정했고, 다음으로 고용, 마지막으로 기타 활동 순으로 선정했다”고 밝힘.
- 팬데믹 대응 1단계에서는 취약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대폭 축소됨. 아동과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다수의 사회복지사들도 다른 의료 부문으로 재배치 됨. 지난주, 아동을 위한 여가 공간이 일부 재개됨.
-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결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제한조치 시행 후, 사람들의 불안이 증가함. 가장 불안이 심해진 계층은 45세 이하의 미혼 인구와 이민자, 그 다음은 1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었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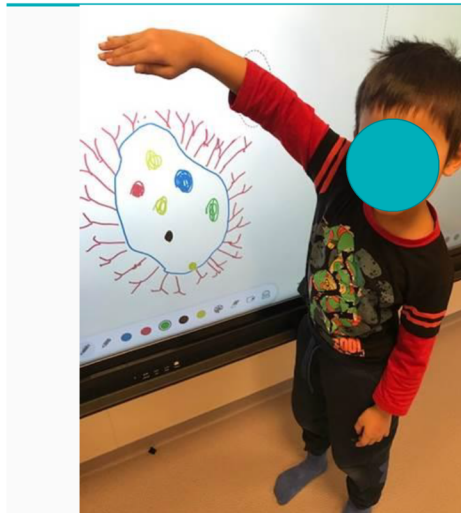
Attention to the social aspects – a growing concern about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 Norway acted quickly to stem the spread of the virus domestically, and limit infection from abroad while increasing health service capacity. The first policy response was a concern towards the elderly population and concerns about economic impacts. But also, the educational sector and children and youth were on the agenda early.
- Most recently, concerns about the social cos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k down procedures and the need to mitigate the consequences has shaped policies relating to the easing of lock down procedures.
- The Norwegian Prime Minister, Erna Solberg, reflected, “The government has chosen to prioritise children, then working life, and finally other activities.”
- Services for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were considerably reduced during the first stage of fighting the pandemic. Most of the low threshold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ere closed due to social distancing and many of the social care workers in these services were reallocated to other parts of the health system. Last week some leisure arena were reopened for children
- A study of quality of life showed that people were more concerned after the COVID-19 outbreak regulations were implemented. The groups expressing the greatest increase in level of concern were single people under the age of 45 and immigrants, followed by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7.



4

코로나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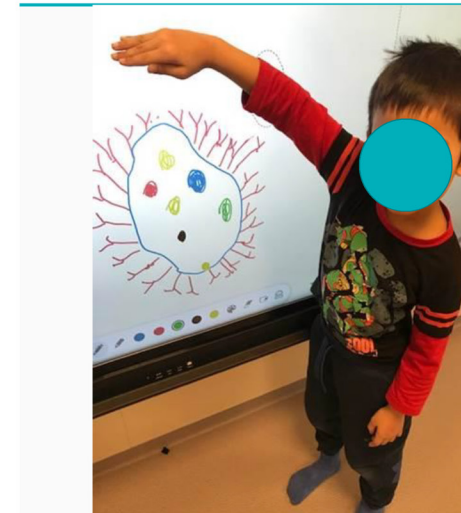
- ▶ 아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질문이 적음
- ▶ 일부 부모는 외출을 삼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전보다 조용한 일상에 안도
- ▶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들도 있음; 부모 모두 재택근무하는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항상 집에만 있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
- ▶ 2차 코로나 제한조치 발표 이후, 몇몇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인해 아동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냄.

총리에게 묻는 질문들:

- ▶ 가장 어린 아동들의 쫓고, 요점이 명확한 질문들
- ▶ 정확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요?
- ▶ 5월 17일(제헌절 축제)에 재미있게 놀 수 있나요?
- ▶ 아니면, 아무런 파티도 없나요?
- ▶ 언제쯤 다시 학교에 가서 축구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 ▶ 학교가 언제까지 문을 닫나요?
- ▶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을 잃을 만큼 전염성이 강한가요?

5

Children's corona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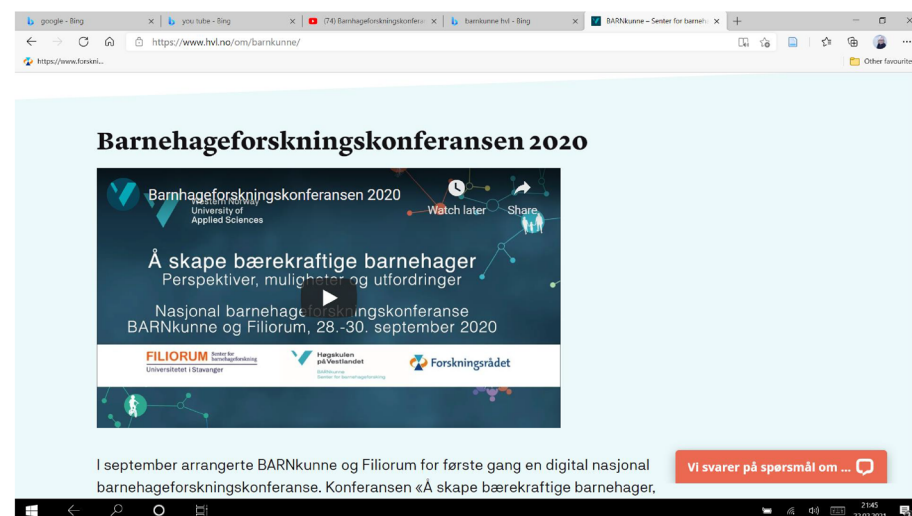
- ▶ The younger the children, the fewer questions they had.
- ▶ Some parents reported a relief over calmer days, with staying at home, that it was good with more family time
- ▶ Others were very distressed; it was too much with children at home at the same time as two parents with home office.
- ▶ After the second lockdown several organizations alarmed that children suffered due to covid-19 restrictions on society

Questions to the prime minister:

- ▶ Short, focused questions from the youngest children
- ▶ What exactly is Coronavirus?
- ▶ Are we coming to celebrate May 17?
- ▶ Or will there be no party?
- ▶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before we can go to school and football training again?
- ▶ How long do you think the schools will be closed?
- ▶ Is the Corona virus very contagious as if you could die from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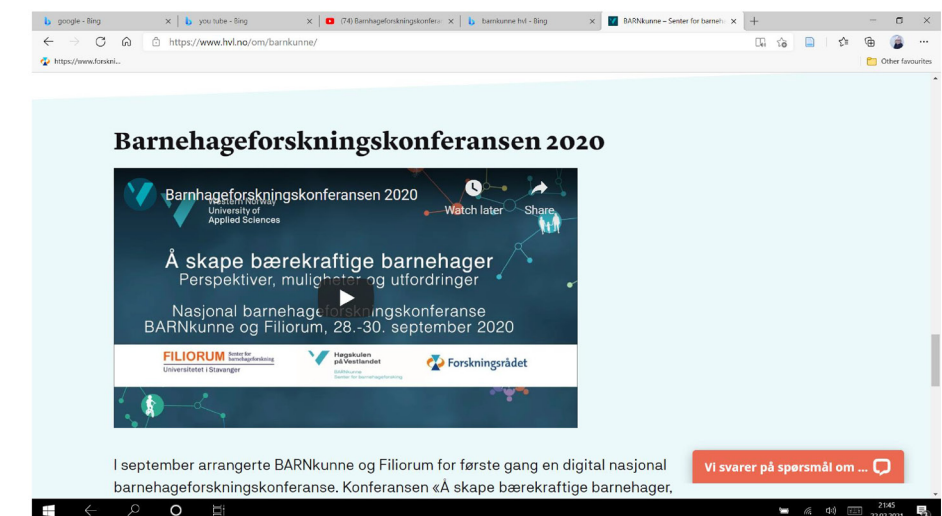
5

팬데믹 발생 후: 온라인 연구 컨퍼런스를 준비 –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모두에게 자유롭게 열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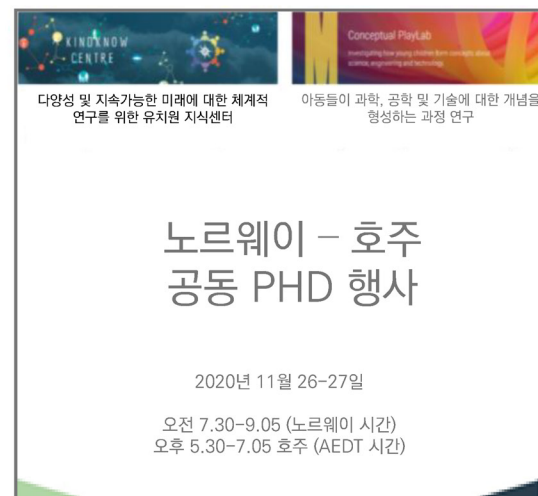
6

Since the outbreak - Created a digital National Research Conference – free and open for all on sustainabi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6

팬데믹 발생 후: 국제 네트워킹을 위한 새로운 방법 발견



7

팬데믹 발생 후: 현장 조사 및 현장참여를 중심으로 기획했던 연구를 수정 설계함



8

Since the outbreak: Found new ways of international netwo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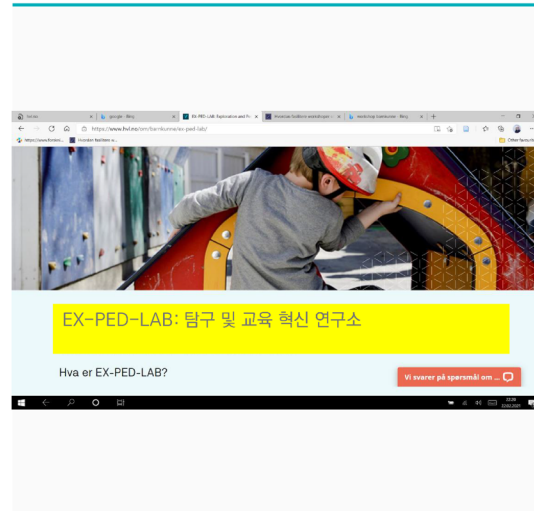
7

Since the outbreak – Redesign research that was planned for fieldwork and participation



8

팬데믹 발생 후: 베르겐(Bergen) 시의 유치원들과 '연구자로서 유치원 교사' 라는 프로젝트를 재설계함 (EX-PED-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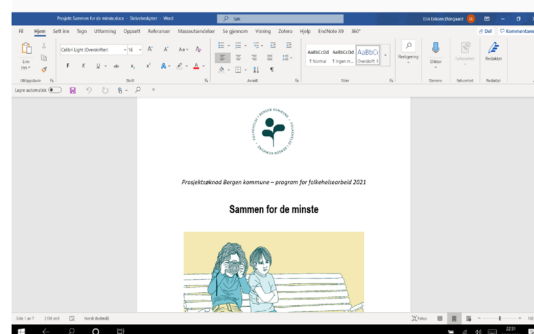


- EX-PED-LAB (탐구 및 교육 혁신 연구소)을 통한 지속 가능한 유치원 분야 설계
- EX-PED-LAB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다학제간(interdisciplinary) 팀들로 구성된 연구 허브로, 이들은 상상, 토론, 연구, 혁신을 통해 유치원 분야를 빠른 시간 안에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

9

팬데믹 발생 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학제간 프로젝트 추진 (유아교육 및 보육 종사자, 공중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 의학분야)

2021년 재원 확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다학제간 팀의
역량 강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이해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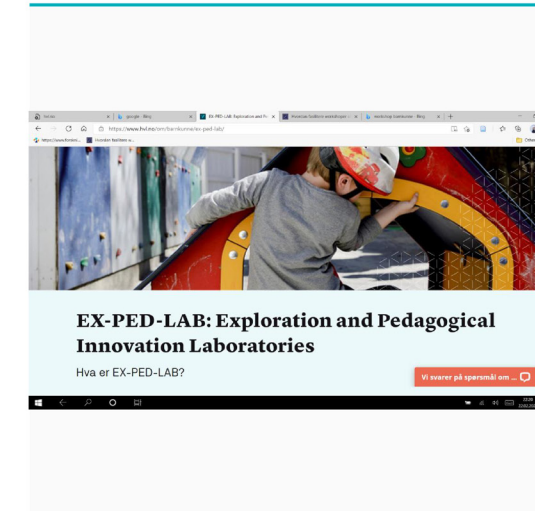
2021년 연구 신청서 제출: 유아교육에서의
운동-놀이-탐구(Move-play-explore)
(RCT - 연구)

모든 아동이 인생에서 최상의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국민 건강 향상, 형평성
있는 인적 자본의 개발, 행복, 삶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함.



10

Since the outbreak – redesigned the project ‘Kindergarten teacher as researcher’ with Bergen City kindergartens - EX-PED-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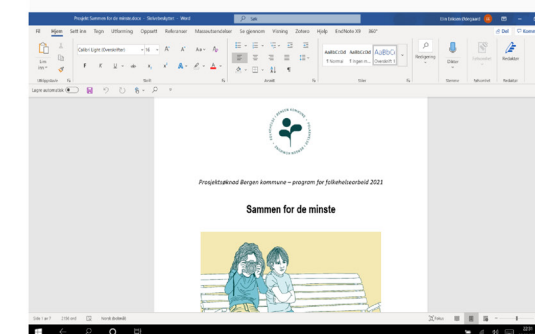


- Sustainable design in kindergarten sector through ‘Exploration and Pedagogical Innovation Laboratory’ [EX-PED-LAB]
- The EX-PED-LAB is a research hub within which interdisciplinary teams across sectors can imagine, debate, research, innovate and generate new knowledge for the development of new practices for immediate transformation of the kindergarten sector

9

Since the outbreak – Developing new interdisciplinary projects Social sustainability Acros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professions, - Public health – Social service, Social medicin

Funded 2021:
Strengthening competence in interdisciplinary
teams working with vulnerable children
Strengthening holistic understanding across
professions working with vulnerable children



Application 2021: **Move-play-explor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RCT - study)**

Giving every child the best start in life must be
the highest priority to effectively address social
inequalities and improve population health,
laying the foundation for equitable development
of human capabilities, well-being, and life
opport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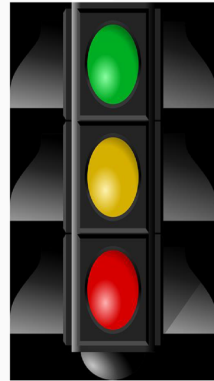


1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INDknow의 역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유치원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 노동조합, 정치인, 부모, 비정부기구, 연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규정 및 제한조치를 협의함

- › 몸이 아픈 사람은 외출을 삼가
- › 성인은 악수나 포옹을 삼가
- ›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
- ›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충분히 환기
- › 사용 가능한 물건 개수 줄임
- › 대면 접촉을 줄임
- › 부모들의 유치원 입장 금지



- › 녹색 레벨 - 통상적인 위생 수칙 준수
- › 황색 레벨 - 일부 제한조치 추가
- › 적색 레벨 - 소그룹 단위만 허용 - 실내그룹과 실외그룹간 물리적 거리두기
- › 운영 시간 조정 가능

- › 어린이들은 소그룹 단위로 다른 친구들 및 직원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가능 - 유치원 밖과 유치원 내의 친구들이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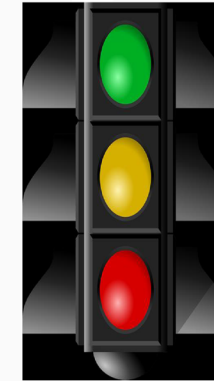
다양성 및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유치원 지식 센터

11

The KINDknow role to Covid related policy?

Official guidelines for kindergarten under Corona-19 – Rules and restrictions were negotiated at many levels
Unions, polititions, parents, NGOs and reserachers

- › Sick people should stay at home
- › Adults should not shake hands or hug
- › Good hand and cough hygiene
- › Good cleaning and ventilation
- › Reduce material available
- › Reduced contact between people



- › Green level – ordinary hygienic practice
- › Yellow level – a few more restriction
- › Red level – small cohorts only – physical distance between cohorts indoor and outdoor
- › Can adapt opening hours

- › Parents do not enter inside kindergar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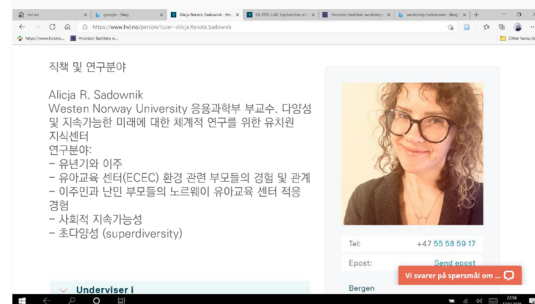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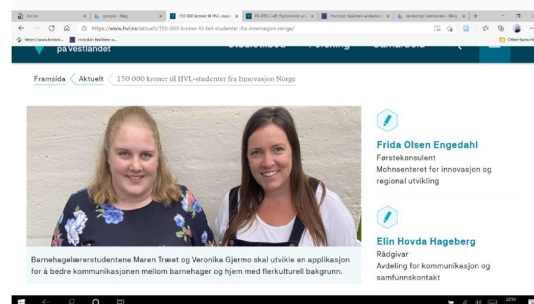
- › Small children can keep close each other and staff in small groups –same friends in kindergarten that outside kindergarten

Kindergarten Knowledge Centre for Systemic Research on Diversity and Sustainable Futures

11

변화의 견인차 KINDknow: 학생과 연구원은 변화의 주체 - 이노베이션 노르웨이(Innovation Norway)가 수여하는 혁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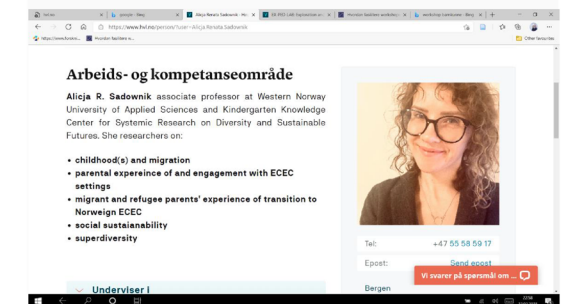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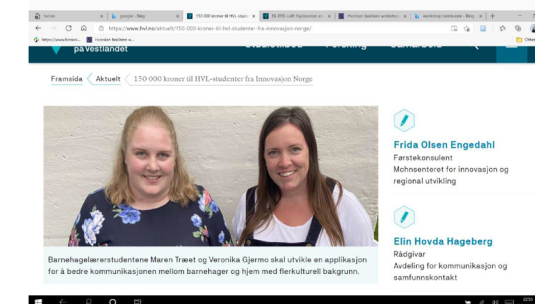
이주가정의 부모들과 유치원 직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사진 기반 앱



12

KINDknow as a driver for change: Students and researchers as agents of change – won innovation prize from Innovation – Norway

Developed an application to ease the communication between
migrant parents and kindergarten staff – photobased



12

원 오션(One Ocean) 프로젝트
-유네스코(UNESCO), 베르겐 시, 연구원의 협력 프로젝트, 해양, 기후, 교육, 문화유산, 예술
변화의 견인하는 KINDknow - 베르겐 시와 상하이(Shanghai)시의 아동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13

One Ocean Project – UNESCO- City of Bergen, Researchers Ocean, Climate, Education, Cultural Heritage and Arts
KINDknow as a drivers for change – including children from Bergen and Shanghai in the project



13

제안사항 1

가장 어린 아동들을 위한 포용 전략

- 모든 어린이를 전부 고려하라
- 통합적인 사고, 포용과 평등을 위한 혁신을 고안하라

제31조

UN 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Recommondation 1

Engagement strategy for the youngest children
– think *all* children – think holistically, think
design innovation for inclusion and equity

Article 3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ren have the right to relax and play
and to join in a wide range of cultural
artistic and other recreational activities.



제안사항 2: 새로운 디자인 사고 - 연구와 혁신

단기적:

- 연구하라: 소규모 집단의 영향에 대한 연구
- 혁신하라: 아동의 놀이와 학습을 위한 환경을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주의와 제한조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장기적:

-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역량 구축: 체계적으로 설계된 연구
- 연구하고 혁신하라: 아동들의 삶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해법 모색
- 연구하고 혁신하라: 취약계층 아동들의 고립 문제 해소
- 연구하고 혁신하라: 모든 아동을 위한 놀이, 탐구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

15

Recommondation 2 - New design thinking – Research and innovation

Immediate:

- Study: impact of small cohorts
- Innovate: Environments for children play and learning: how to design for post- Covid awarness and restrictions



Long term

- Build interdisciplinaty capacity: Systemic design research
- Study and innovate: Find solutions to economy impacts on children's lives
- Study and innovate: Break isolation for vulnarable children
- Study and innovate: Develop play, exploration and movements programmes for all children

15

제안사항 3: 새로운 디자인적 사고 - 새로운 교육방법



- 혁신하라: 사람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모색
- 혁신하라: 가정의 고립 문제 완화
- 유아교육 종사자들의 복원력 있는 대응역량 구축, 문제해결을 위한 마음가짐, 전문적인 도구 확보
- 세대를 아우르는 사고를 하라 - 라이프 사이클에서 여유를 확보하여 운동, 놀이, 탐구, 교류를 위한 더 좋은 기회를 창조

V

Recommondation 3 – New design thinking - New pedagogies



- Innovate: Find new ways of meeting people
- Innovate: Ease up familiiy isolation
- Build capacity for recilience and problemsolving mindsets and tools in the professions
- Think intergenerationally - create spaces for life cyclus for better opportunities to move , play, explore and interact

V

제안사항 4: 교육의 경제성 향상 - 통합적 사고와 대응 조치



- › 교육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라.
- ›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더 취약한 아동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라.
- › 창의적, 혁신적, 건설적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어야 한다.
- › 위기이후 사회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정부는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지목하는 난제와 필요에 대응하고, 정직하고, 명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7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commendations 3 – increase economy in education – holistic thinking and responsive actions



- › Education budget should be prioritied
- › Make it possible for the profession to reach out to the extra vulnerable
- › In order ro be creative, innovative and constructive, economy can encreaes trust in Governance
- › If societies are going to be strenghtenes throug a crises, governance must be honest, clear and responsive to the challanges and needs pointed out by the professions.

17

Thank you for the attention!

[세션Ⅱ]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좌 장 강혜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발 표 마틴 알브레히트 | 독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소장
쿠니아키 타나베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소장
사카리 카르보넨 |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토 론 김미곤 | 세종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대 원장
신영전 | 한양대학교 교수
이창곤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前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황덕순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좌 장

강혜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前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부회장

발 표

마틴 알브레히트 | 독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소장

- 前 독일 연방정부 경제전문가위원회 연구원
- 前 앙골라 지역 독일 대외기술협력단(GTZ) 자문위원
- 前 독일 연방정부 위험위원회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위원회) 연구원
- 前 독일연방은행 경제부 연구원

쿠니아키 타나베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前 도쿄 대학교 법학·정치학 대학원 교수
- 前 도쿄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사카리 카르보넨 |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 現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 사회정책연구부장
- 前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 사회보건정책경제부장
- 前 보건복지 국가연구개발센터(STAKES) 선임연구위원

토 론

김미곤 | 세종사회서비스원 원장

- 現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평가단 단장
- 現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교수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20·21대)
- 前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前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 前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신영전 | 한양대학교 교수

- 前 건강정책학회 이사
- 前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이창곤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現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現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 前 한겨레신문 부국장

황덕순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前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 前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 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세션Ⅱ]

발표 1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마틴 알브레히트 | 독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소장



| Health | Mobility | Education |

IGES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마틴 알브레히트 독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1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베를린/서울 – 2021년 3월 11일

IGES 2021-03-11

IGES Institute, An IGES Group company.

| Health | Mobility | Education |

IGES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light of the Covid 19 pandemic

Dr. Martin Albrecht, IGES Institute

International Symposium: Marking the 51st Anniversary of KIHASA

Berlin/Seoul – March, 11th 2021

IGES 2021-03-11

IGES Institute, An IGES Group company.

개요

IGES

1.독일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 –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2.코로나19 위기가 미래 독일 사회보장 제도에 주는 함의

IGES 2021-03-11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2

Outline

IGES

1. The Covid 19 pandemic in Germany – Respons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2. Implications of the Covid 19 Crisis for the future of Social Security in Germany

IGES 2021-03-11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2

| Health | Mobility | Education |

IGES

1. 독일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3

| Health | Mobility | Education |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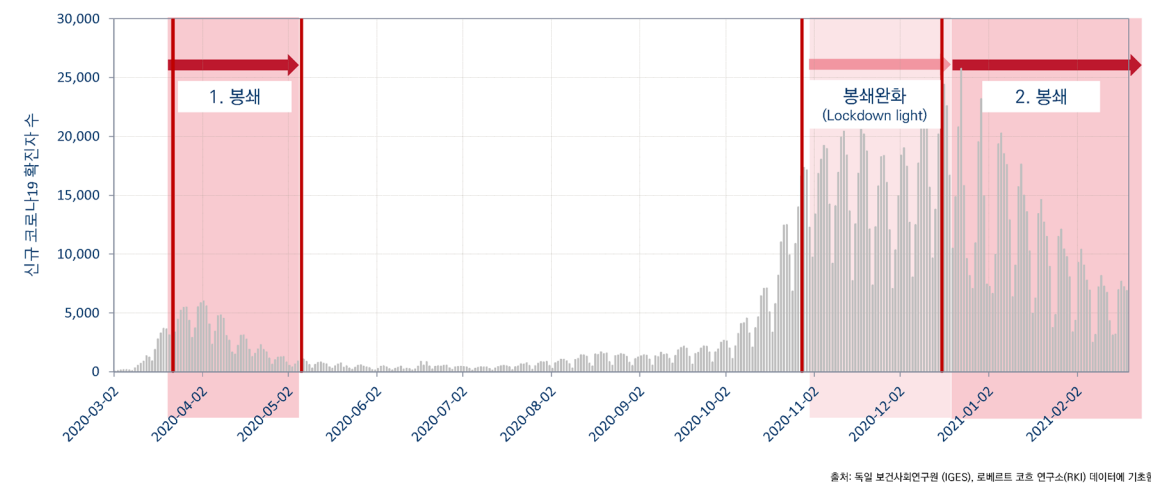
1. The Covid 19 pandemic in Germany – Respons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3

코로나19 팬데믹은 몇달간 경제, 사회적 삶에 심각한 제약을 야기함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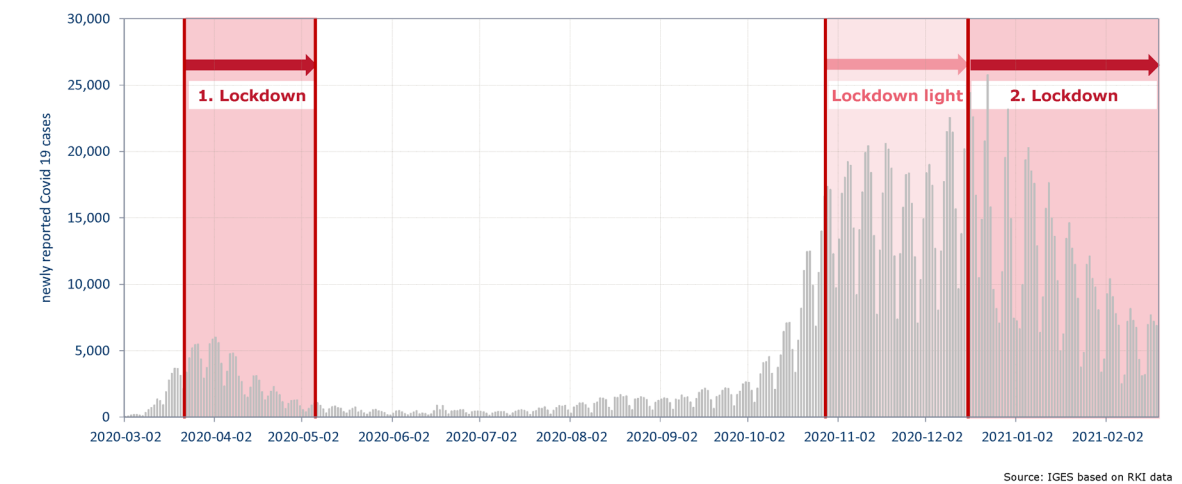
출처: 독일 보건사회연구원 (IGES),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 데이터에 기초함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4

Covid 19 pandemic caused severe restrictions on economic and social life for several months IGES



Source: IGES based on RKI data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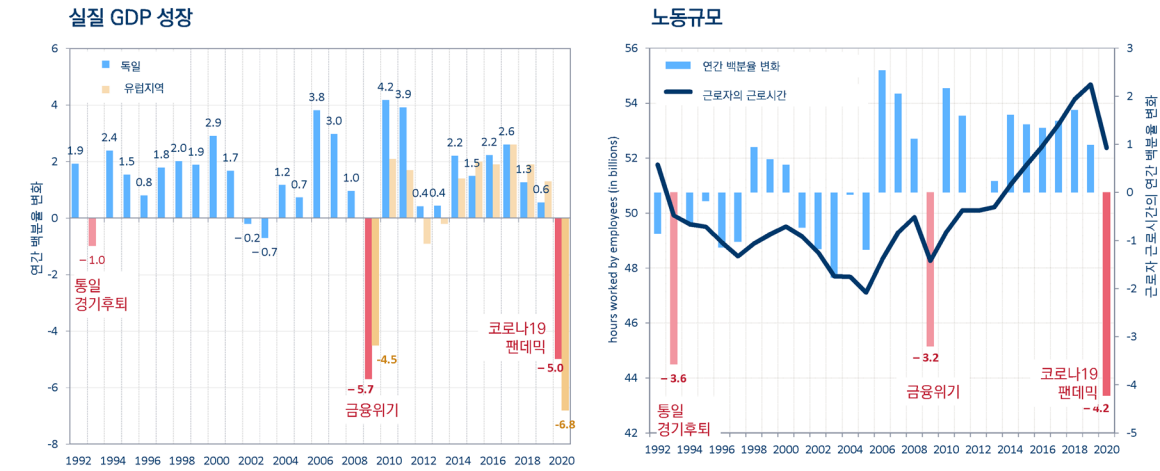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세션II]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 마틴 알브레히트

코로나19 팬데믹 제한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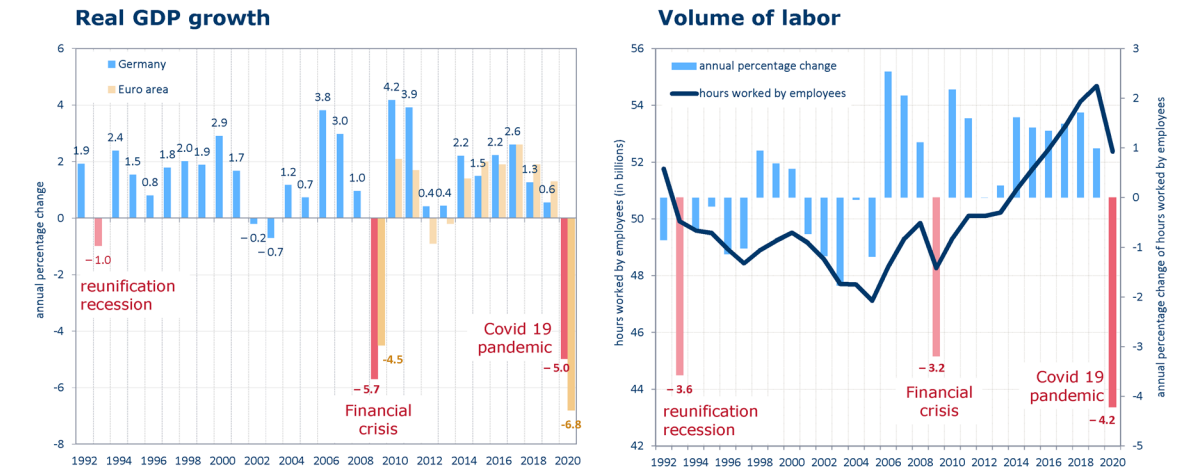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5

The restrictions hit the economy hard by historical standards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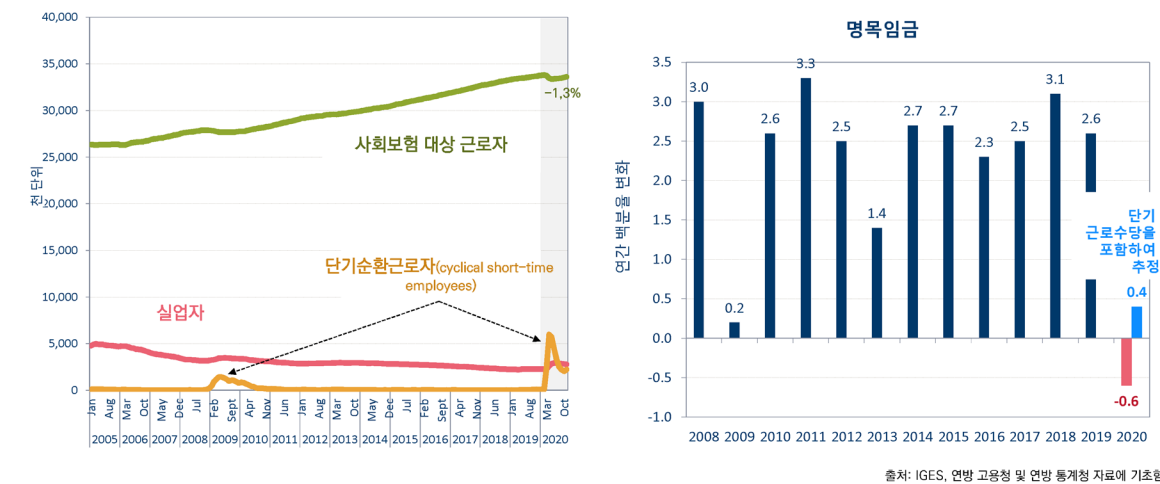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5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동시장 영향: 소득유지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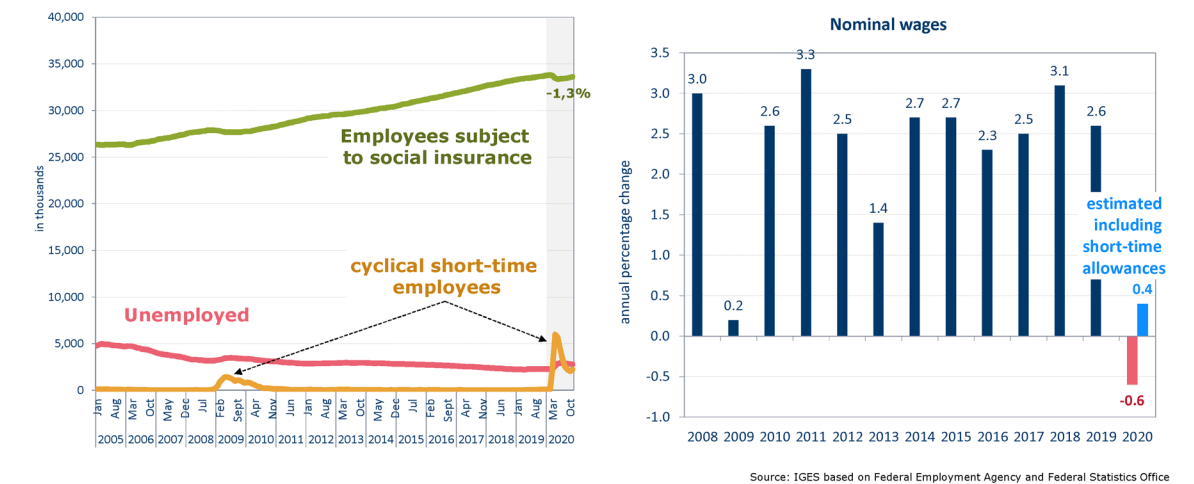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6

Social Security Response to labor market impact: Income maintenance

IGES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6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연방세금 투입

IGES

분야	지원(선별)Provision (selection)	백만유로(€)	조세지원조치 (손실세수)
보건의료	병원매출 손실 보상	11.605	- 일시적인 판매세 감소 - 아동 보너스 지급 - 한부모 구제자금 증가 - 세금손실 환불(tax loss carryback) 증가 - 정률 감가상각 세금(balance depreciation tax)의 하락 가능성 및 코로나 기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 면제 가능성
	보호장구, 방독 마스크, 백신, 코로나 치료제 구매	6.100	
	기타 보건의료 인력 보조금 지급	1.285	
	중증치료병상 설치비용 지원	686	
	보호마스크 비용지불	656	
	코로나 테스트 비용 지불	564	
	돌봄 제공자 및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별수당(benefits)	100	
사회보장	연방 고용청에 대한 대출(Loan)	6.900	출처: IGES, 연방 재무부와 연방 사회보장국 자료에 기초함
	공공의료보험(Statutory Health Insurance) 및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금보조(Tax Subsidies)	5.300	
	구직자 기본수당 지원에 연방정부 참여	5.400	
경제/비즈니스	소상공인 및 단독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긴급지원	14.100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도입	3.700	
지자체	지자체의 무역세수 부족분 보상	6.100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7

Massive use of federal tax money to cope with Covid 19 pandemic

IGES

Sector	Provision (selection)	Million €	Tax aid measures (foregone tax revenues)
Healthcare	Compensation for loss of hospital revenue	11.605	- temporary reduction of the sales tax - children's Bonus - increase of the relief amount for single parents - extension of the tax loss carryback - possibility of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 tax and social security exemption for Corona grants and subsidies
	Purchase of protective equipment, respirators, vaccines, and Covid-19 drugs	6.100	
	Subsidizing other health care providers	1.285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of intensive care beds	686	
	Payment of protective masks	656	
	Corona test payment	564	
	Special benefits to caregivers and social service providers	100	
Social Security	Loan for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6.900	
	Tax Subsidies to Statutory Health Insurance and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5.300	
Economy/ Business	Federal government participation in basic benefits for jobseekers	5.400	
	Corona emergency aid for small businesses and solo self-employed persons	14.100	
	Bridging ai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3.700	
Municipalities	Compensation for municipalities' shortfall in trade tax revenues	6.100	

Source: IGES based o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and Federal Social Securit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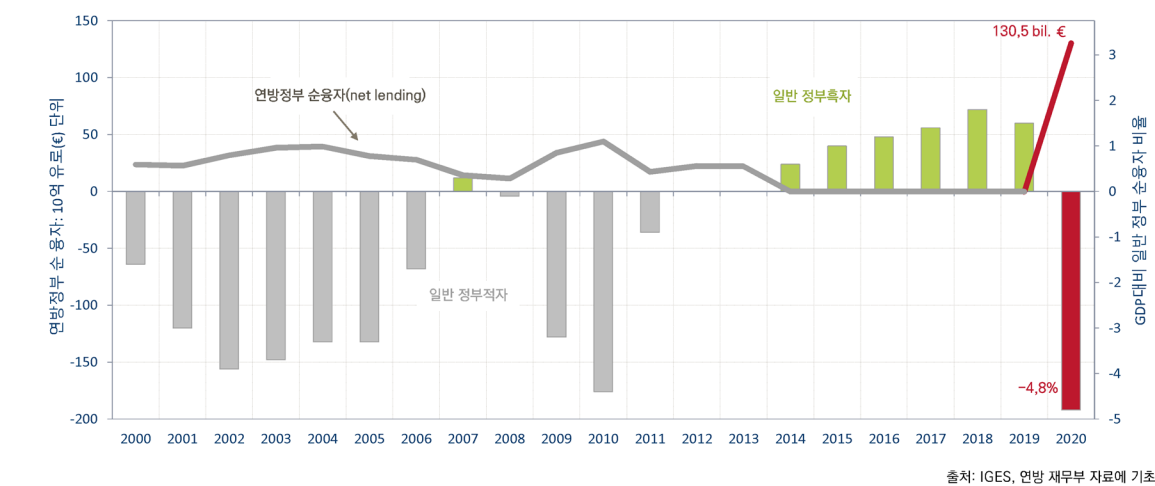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7

정부의 미래 재정지원 옵션의 급격한 악화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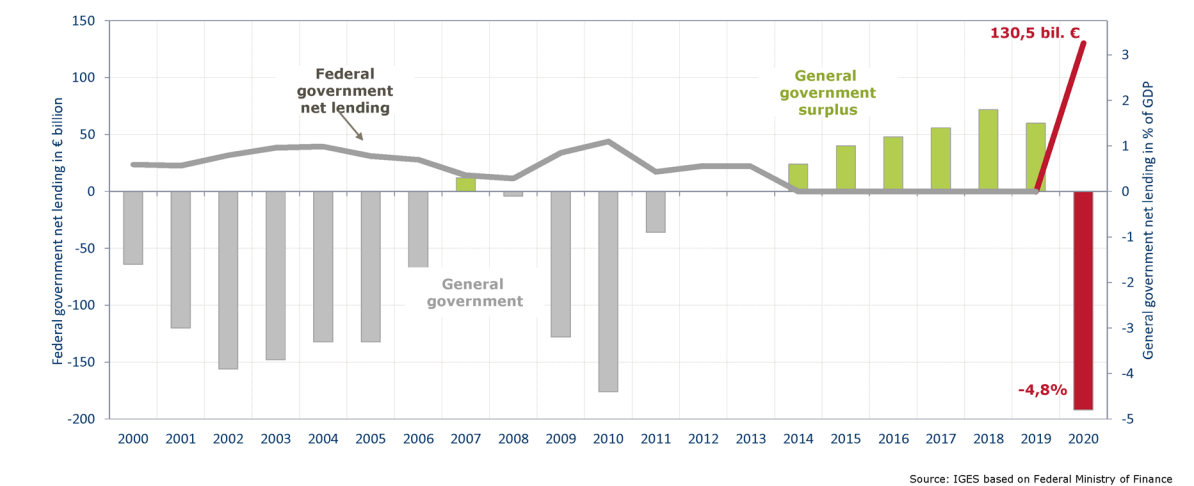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8

Government's future financing options have deteriorated sharply in a very short time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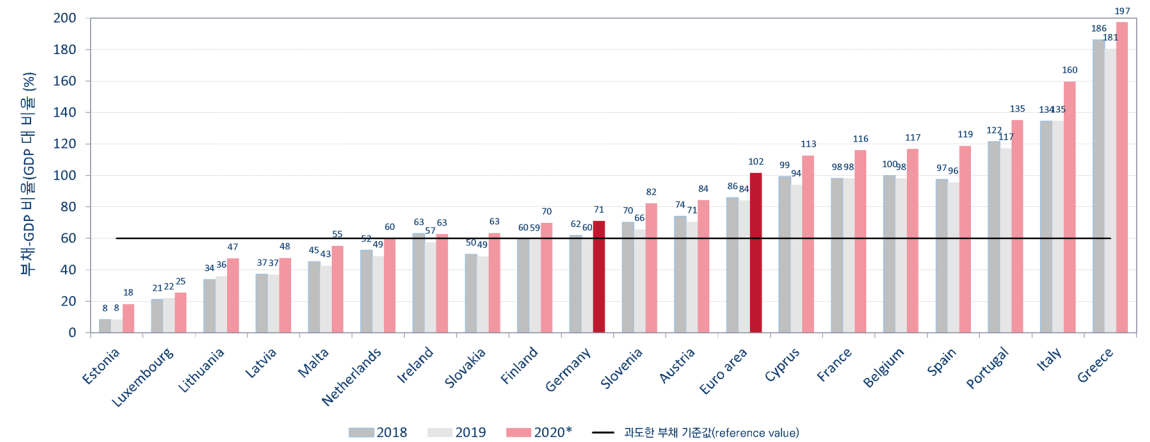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8

전 유럽 국가가 겪는 공공부채의 급격한 증가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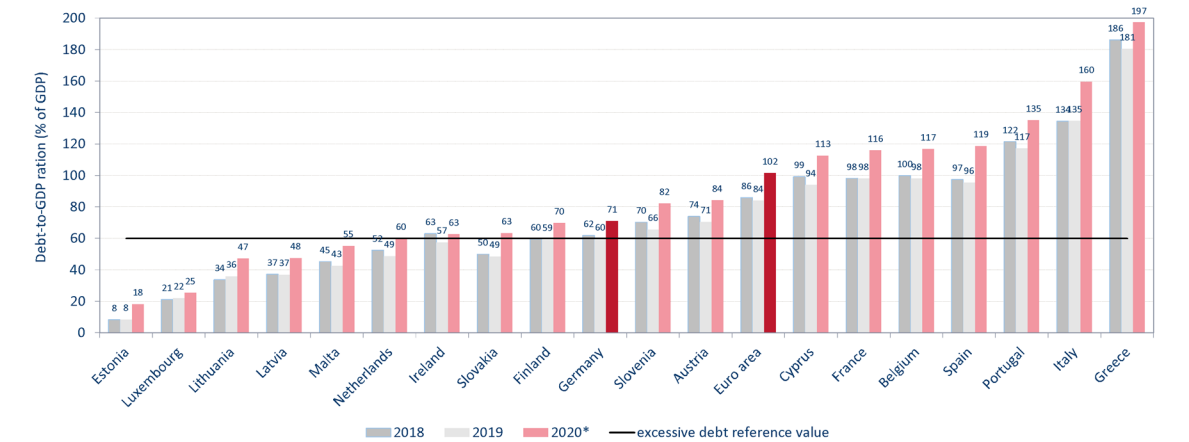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9

The sharp rise in public debt is affecting all European countries

IGES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9

IGES

2. 코로나19 위기가 미래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주는 함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10

IGES

2. Implications of the Covid 19 Crisis for the future of Social Security in Germany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10

기본적인 자원조달 관련 문제

IGES

미래 자원 조달을 위해 사회보장 기여금과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 것인가?

기여금(contribution) 기반의 자원조달 원칙: 이미 오랫동안 파탄상태(broken)

- 법정연금보험(Statutory Pension insurance): 소위 비보험 급여(noninsurance benefit)를 보상하기 위해 높은 연간 세제혜택을 수십년간 지원 (현재는 전체 지출의 ~23%에 육박).
 - 공공 의료보험: 2004년 부터 지출과 수입증가 사이의 커져가는 갭을 메꾸기 위한 세금보조 관련 지출 증가 (2020년: 전체지출의 ~7%).
 - 사회적 장기요양보험: 팬데믹으로 인해 처음으로 세금보조 지원(2020년: 전체지출의 ~4%).
- 더 높은 세금보조 혜택 필요성 증가?
“사회적 보장(Social Guarantee)”: 사회적 보장 기여금 총액이 총소득의 40%를 초과해서는 안됨(현재: 39.95%)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11

Dealing with basic financing issues

IGES

What should the financing mix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taxes look like in the future?

Principle of contribution financing: broken for a long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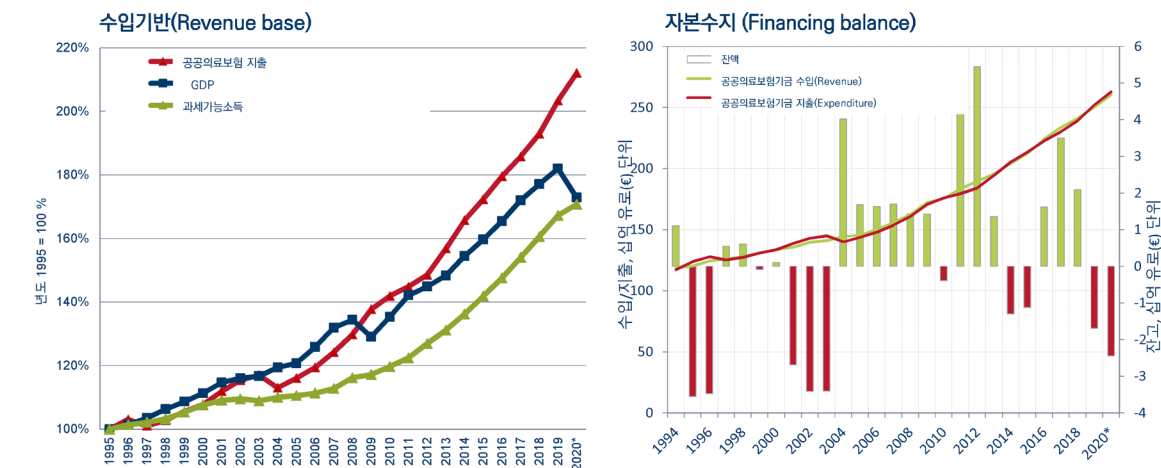
- Statutory **pension** insurance: high annual tax subsidies to compensate for so-called noninsurance benefits since decades (currently ~23% of total expenditure).
 - Public **health** insurance: growing tax subsidies since 2004 to close the widening gap between expenditure and revenue growth (2020: ~7% of total expenditure).
 -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tax subsidy due to the pandemic for the first time (2020: ~4% of total expenditure).
- **Increasing need for even higher tax subsidies?**
“Social Guarantee”: sum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may not exceed 40% of gross income (currently: 39.95%)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11

공공의료보험: 몇년간 흑자행진 이후 적자 증가세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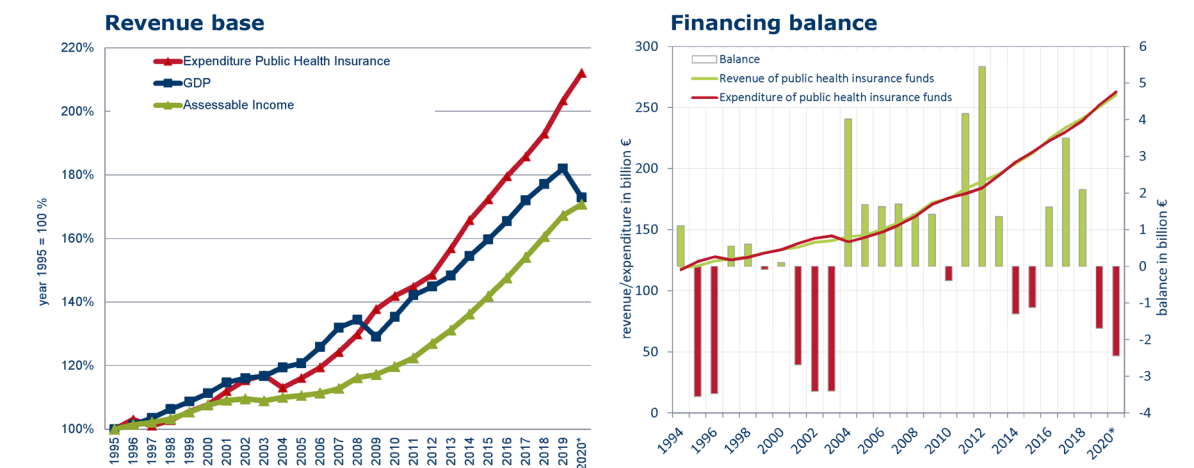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12

Public health insurance: growing deficits after many years with surpluses

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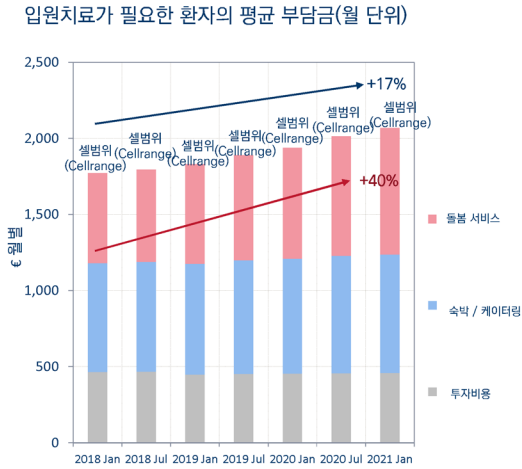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12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으로 실제 요양비용을 보장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IGES

- 장기요양보험은 부분보장 보험으로 간주됨.
- 1995년 도입당시의 목표는 적어도 거주형 요양시설(residential care)에서의 순수 간호비용을 전액 보장해주는 것이었음.
- 오늘날: 환자 본인 부담금(co-payments)이 빠르게 상승 중.
- 개선계획: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세금보조를 통한 재원조달 제안
- 과거의 강력한 급여혜택 확대: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적자확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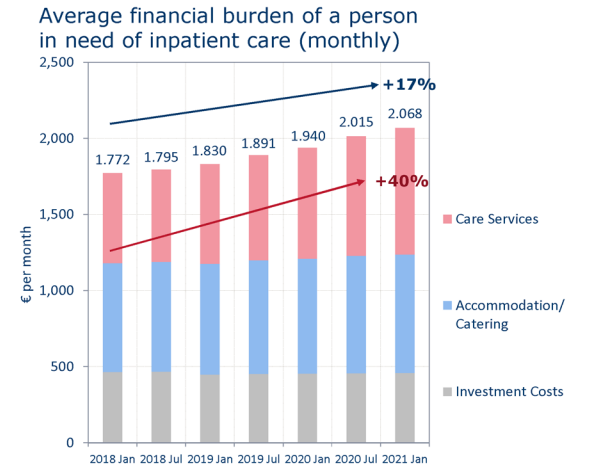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13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covers less and less of the actual cost of care.

IGES

- Long-term care insurance is considered a **partial coverage** insurance.
- When introduced in 1995, the aim was to cover at least the pure nursing costs in residential care.
- Today: high and rapidly growing **co-payments**.
- Plan for reform: capping of co-payments, financing by tax subsidies proposed.
- Due to strong benefit expansion in the past: **deficits** expected addition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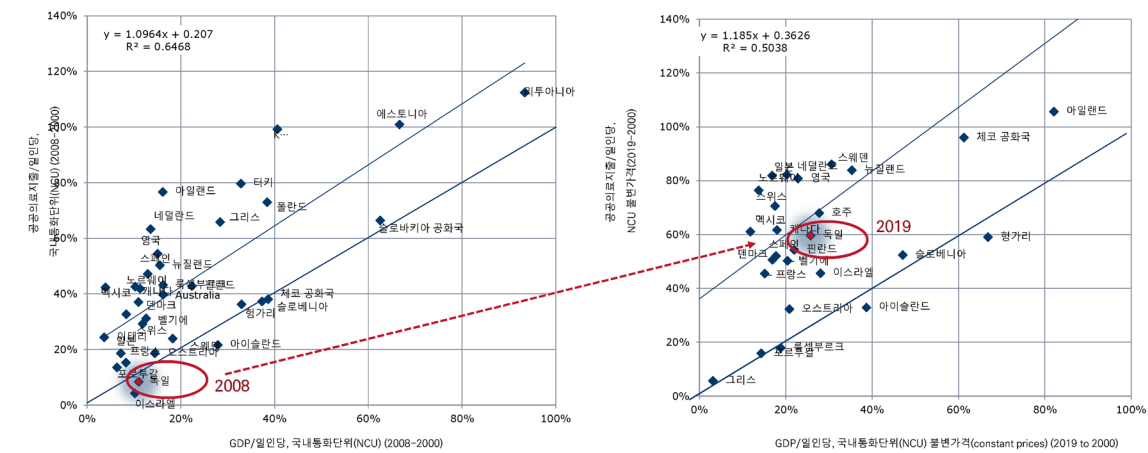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13

재원조달 이외의 대책은?: 비용억제 및 효율성 개선

IGES

공공의료지출 증가 vs. GDP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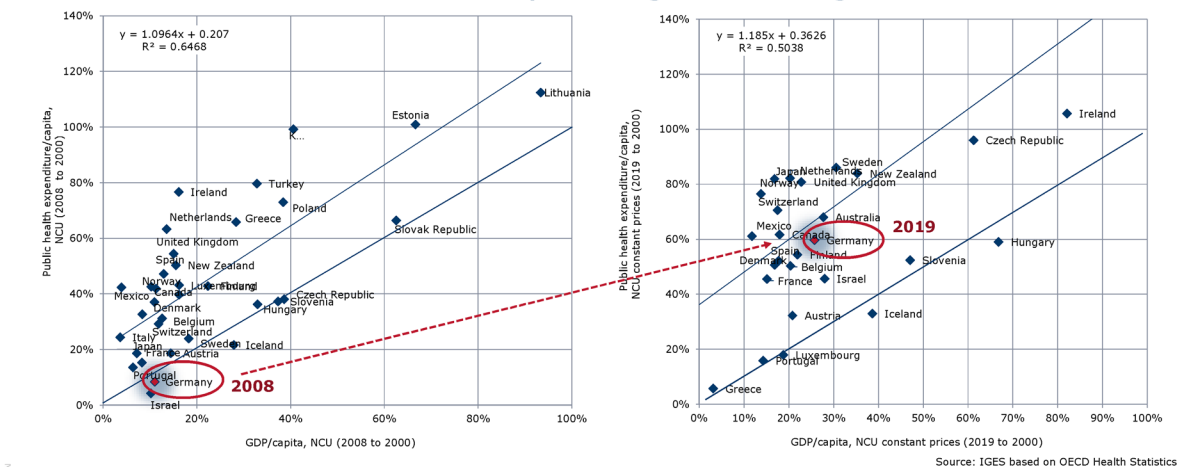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14

Beyond financing: Cost containment and efficiency improvement

IGES

Public health expenditure growth vs. GDP growth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14

가장 큰 미래 도전과제는 의료기관 재구조화

IGES

- 독일 병원의 높은 수용력 및 평균 이상의 병원이용 빈도.
- 실상은 소규모의/전문성이 부족하고 위치가 좋지 않은 병원이 너무 많음.
- 이는 경제적, 질적 측면에서 불리함.
- IGES 연구 (2019)
 - 더 큰 규모의 훨씬 적은 수의 부지 만으로도 병원의 접근성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 더 많은 병원을 한곳에 집결 시켜 병원의 위치 집중도를 높여야만 품질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 팬데믹을 배경으로 이 연구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활발함.



출처: IGES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15

Restructuring of the hospital sector is the biggest future challenge

IGES

- Large hospital capacities and above-average hospital frequency in Germany.
- Too many small / insufficiently specialized hospital locations.
- Disadvantages in economic and quality terms.
- IGES study (2019)
 - good accessibility of hospitals could be maintained with significantly fewer and larger sites
 - quality targets could only be achieved with even greater concentration
- Study still being discussed very controversially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pandemic.



Source: IGES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15

의료보험 체계는 전염병에 더 많이 집중해야

IGES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는 비 전염성, 만성질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옴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는 준비 안된 상태에서 팬데믹을 맞이함.

3가지 핵심 도전과제:

- 충분한 팬데믹 대응역량 유지:
보호장구, 의약품, 인력과 장비비축분 준비.
- 위기에 대비한 공급안정성 확보:
전세계 공급망 고려, 관련 의존도 축소
- 디지털화 추진:
데이터 생성, 흐름 및 네트워킹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16

Focus health care system more on infectious diseases

IGES

Development of healthcare structures focused on non-communicable, chronic diseases.

Pandemic largely caught German health system unprepared.

Three key challenges a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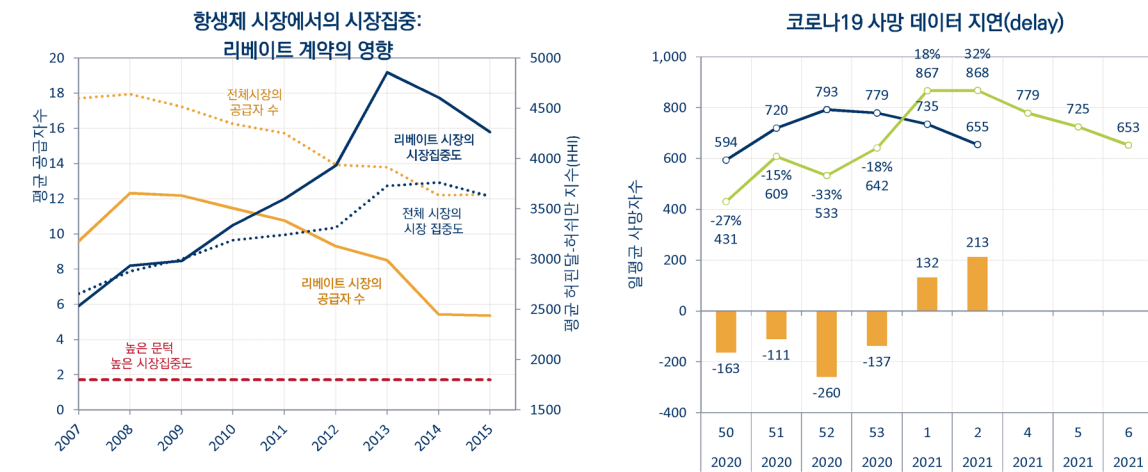
- Maintaining sufficient capacity for pandemic situations:
protective equipment, medicines, organizat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reserves.
- Security of supply in times of crisis:
international supply chains and reduction of resulting dependencies.
- Promotion of digitization:
generation, flow and networking of data.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16

팬데믹 관리를 위한 의약품 공급 및 데이터 흐름 보장: IGES 분석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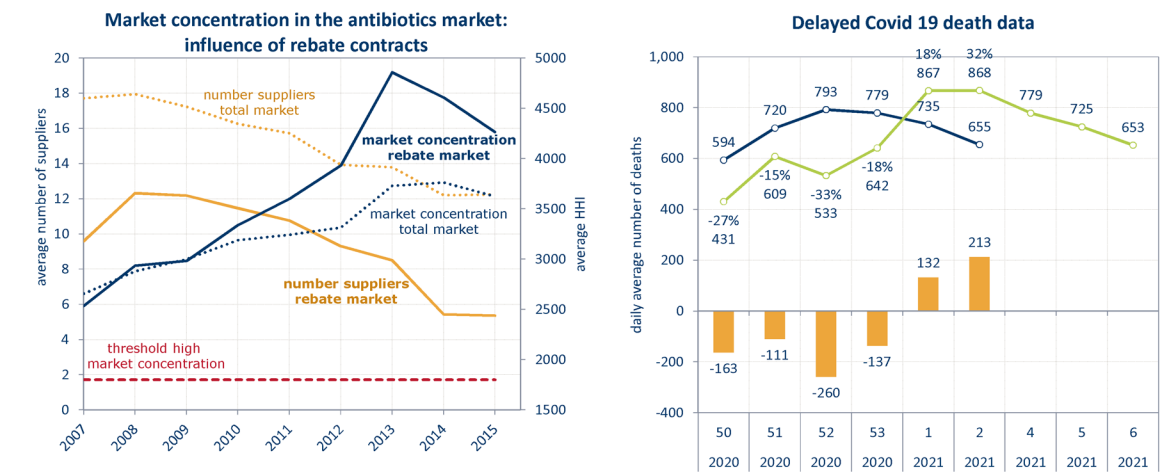
출처: IGES, 국립백신연구소(NVI)국립수의연구소(???) 자료에 기초함 (원목그림), IGES 팬데믹 모니터링 /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 (오른쪽 그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17

Security of drug supply and data flow for pandemic management: examples of IGES analysis

IGES



Source: IGES based on NVI (left figure), IGES Pandemic Monitor / RKI (right figure)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17

결론

IGES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구체적으로는 독일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이며,
다음의 3가지 도전과제 제시:

- 정치적 의제에서 이미 다루고 있던 기존 과제에 대한 긴급성을 더욱 환기 시킴(가장 중요한 예: 디지털화)
- “전통적인” 주제인 비용억제 및 근본적인 자원조달 이슈 제기
- 또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예, 팬데믹 수준 전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환경 구축)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독일의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March, 11th 2021 Page 18

Conclusion

IGES

The Covid 19 pandemic is a stress test for social security systems.
Specifically for the 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t brings three types of challenges:

- It has increased the urgency of tasks that were already on the political agenda. Most important example: digitization.
- It will bring “traditional” topics back on the agenda, this concerns cost containment and fundamental financing issues.
- And it brings new tasks, namely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communicable diseases with a pandemic dimension.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security/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in the light of Covid 19 pandemic

March, 11th 2021 Page 18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 Health | Mobility | Education |

IGES

독일 보건사회연구원(IGES Institute) 연구소장
마틴 알베르히트(Martin Albrecht)

www.iges.com

IGES 50th ANN

IGES Institute. An IGES Group company.

| Health | Mobility | Education |

IGES

IGES Institute
Dr. Martin Albrecht

www.iges.com

IGES 50th ANN

IGES Institute. An IGES Group company.

[세션Ⅱ]

발표 2

보건복지정책에서의 일본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IPSS)의 역할

쿠니아키 타나베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1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2021년 3월 11일



보건복지정책에서의 일본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IPSS)의 역할

쿠니아키 타나베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소장



International Symposium:
Marking the 51st Anniversary of KIHASA
Future Health and Welfare Policies in the Post-COVID Pandemic Era and the Role of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11th March 2021



The Role of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for Health and Welfare Policies

Prof. Kuniaki TANABE
Director-General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두 기관의 협력역사

1980년대
협동연구프로젝트, 국제
심포지엄

1990년대
저출산 관련 국제 심포지엄

2009: 협력에 대한 협동발표

연례 협동 세미나 및
임시회의



2019



2018



2017



2014



2015

Our collaboration

1980s
Joint Research Project
International Symposium

1990s
International symposium
on low fertility

2009: Joint Announcement
on the Cooperation

Annual Joint
Seminars and ad-
hoc meetings



2019



2018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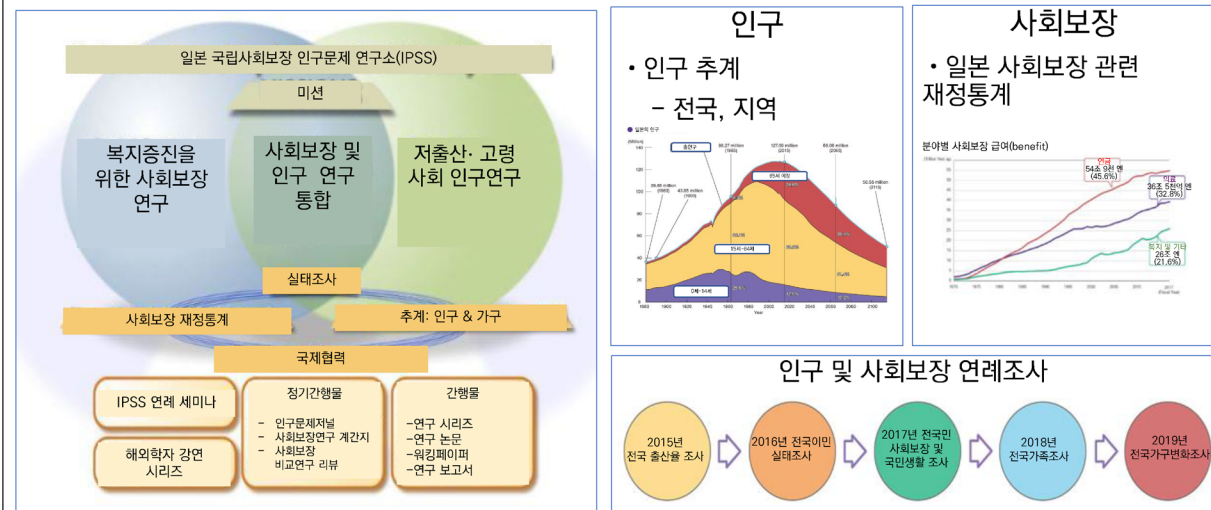
2014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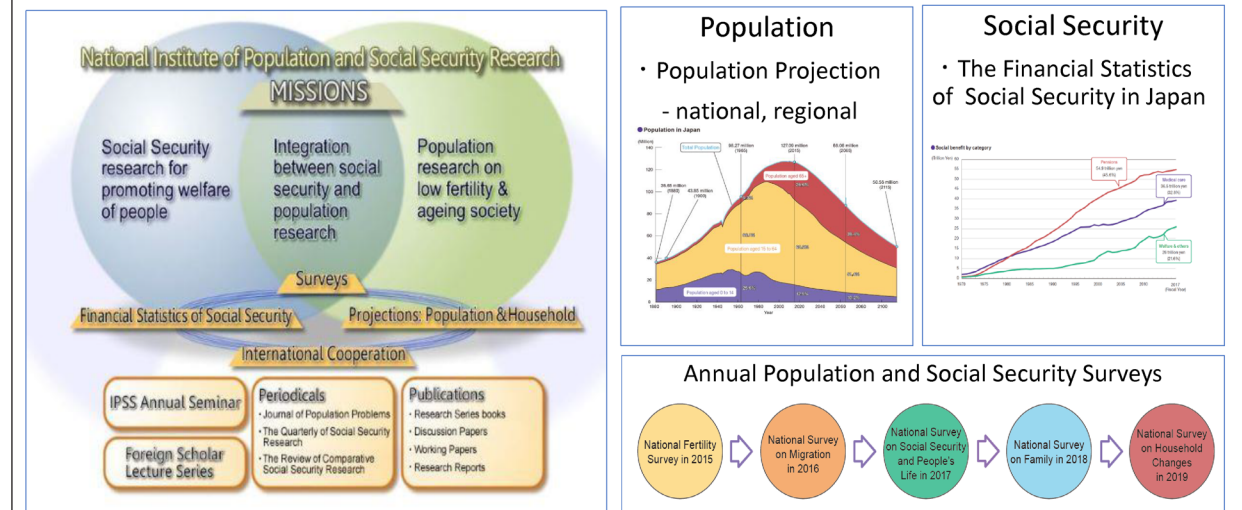
미션

연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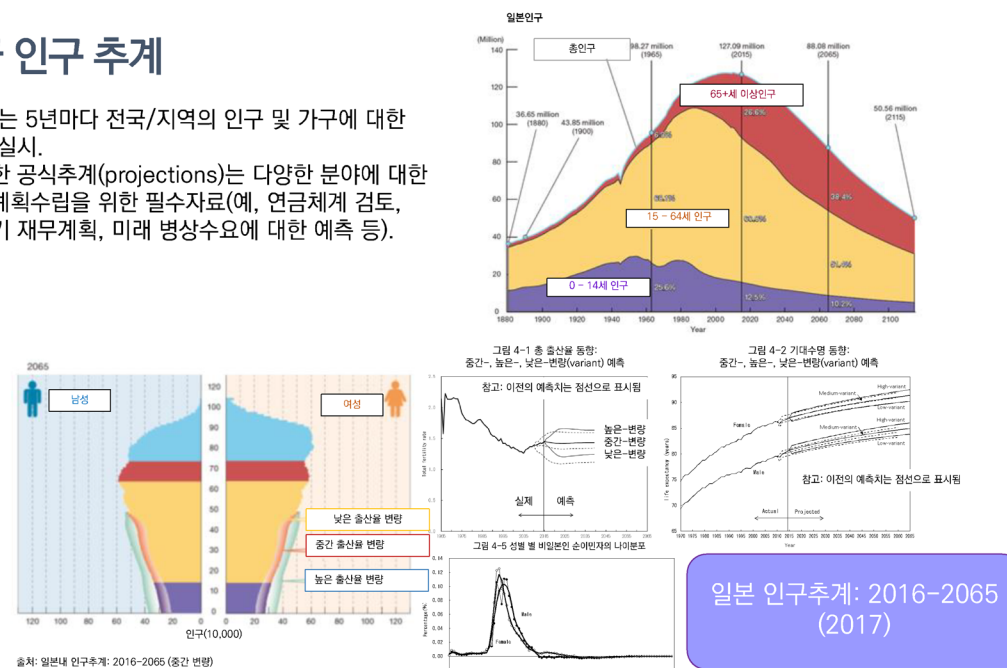
Our Mission

Our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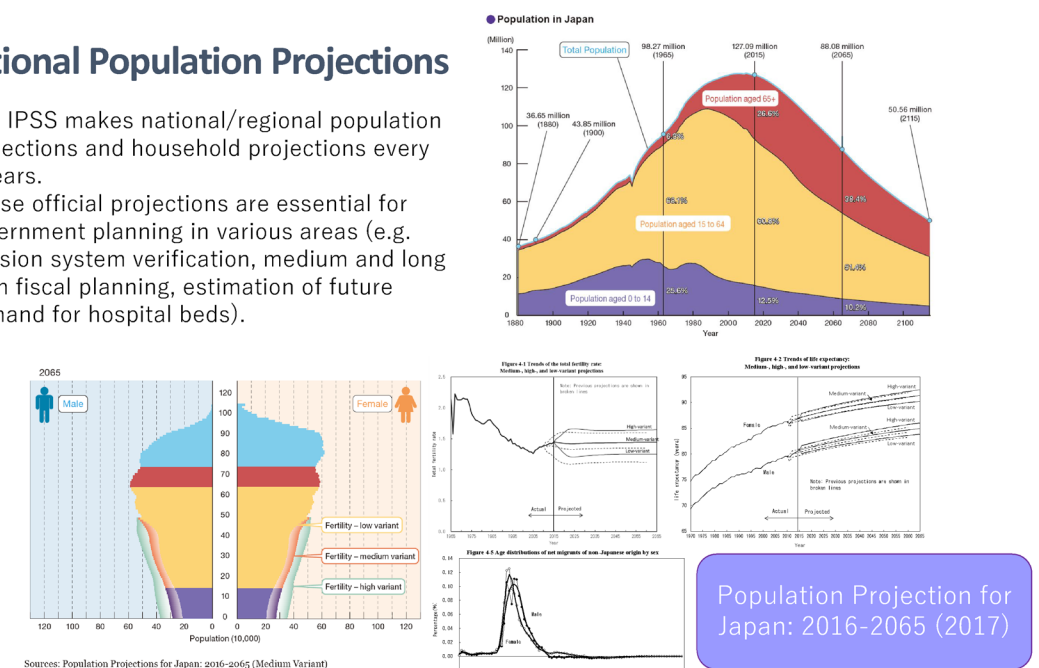
전국 인구 추계

- IPSS는 5년마다 전국/지역의 인구 및 가구에 대한 전망 실시.
- 이러한 공식추계(projections)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부계획수립을 위한 필수자료(예, 연금체계 검토, 중장기 재무계획, 미래 병상수요에 대한 예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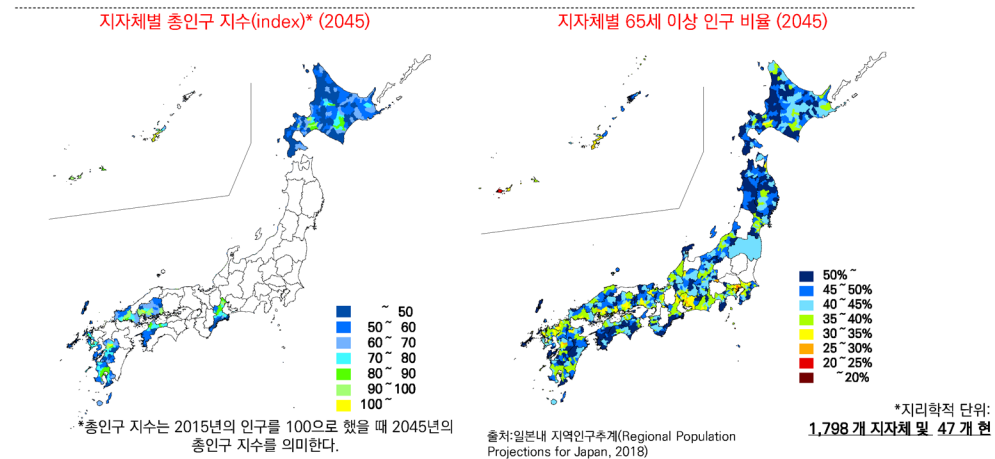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 The IPSS makes national/regional population projections and household projections every 5 years.
- These official projections are essential for government planning in various areas (e.g. pension system verification, medium and long term fiscal planning, estimation of future demand for hospital b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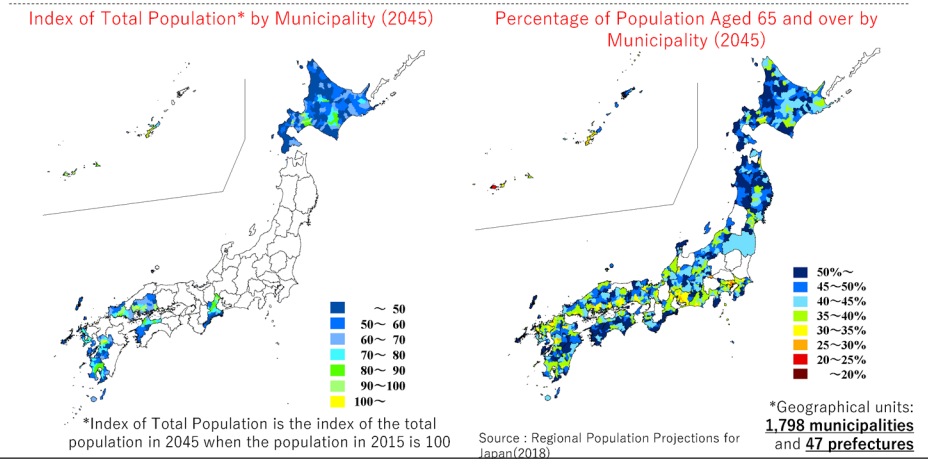
지역인구추계

- 지역인구 추계자료는 다양한 사회경제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에 대한 중요성 커짐
- 많은 지역에서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총인구의 지수 값(values of index)이 낮은 지역에서의 고령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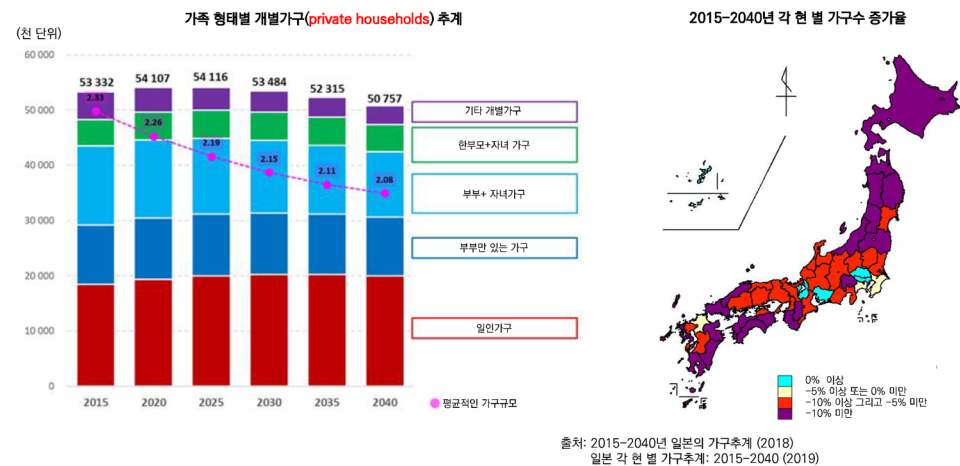
Regional Population Projections

- Regional population projections are used as the basic data for formulating various socioeconomic and community welfare plans (The Promotion of Overcoming Population Decline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etc.) and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 While the future regional populations are projected to decline in many areas, the aging rates are high in areas with low values of index of total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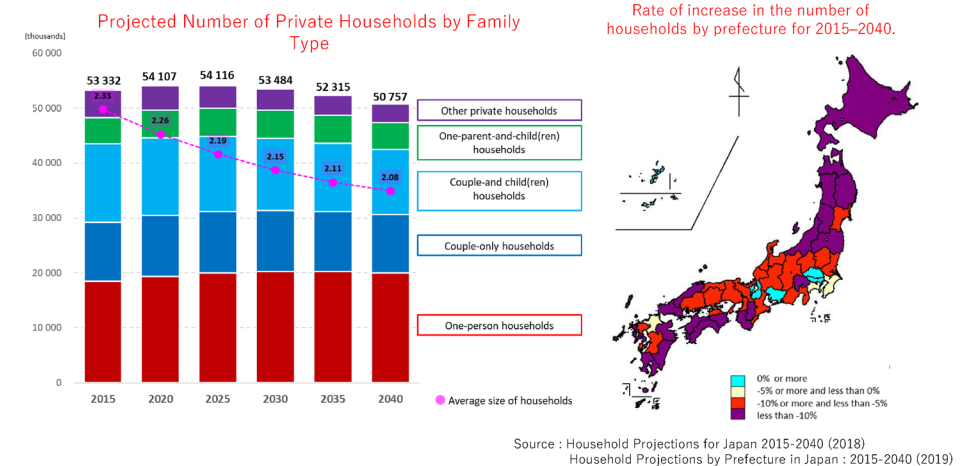
가구 추계 (전국 & 지역 단위)

- 가구 추계 결과를 보면 일본내 모든 지역(과 모든 현)에서 가족의 크기는 축소되고 있으며(평균 사이즈 감소) 인구감소에 따라 가구 수도 줄어들
-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현에서 가구수의 감소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인구감소가 예상됨



Household Projections (National & Regional Level)

- Household projections present both shrinking individual families (i.e. smaller average size) and decreasing number of households prevail of all Japan (& of all prefectures) as declining population.
- The number of household decrease is severer in prefectures where population aging is advanced and serious population decrease is anticipated.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제연구기관의 역할

[세션Ⅱ]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국제연구기관의 역할

보건복지정책에서의 일본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IPSS)의 역할 | 쿠니아키 타나베

일본 사회보장관련 재정통계

그림 1: 1970-2018 회계연도(FY)의 각 범주 별 사회보장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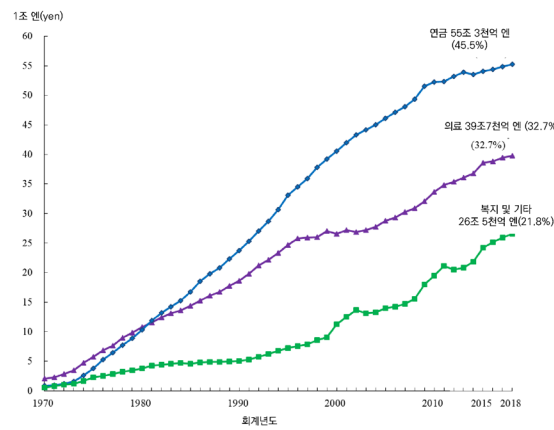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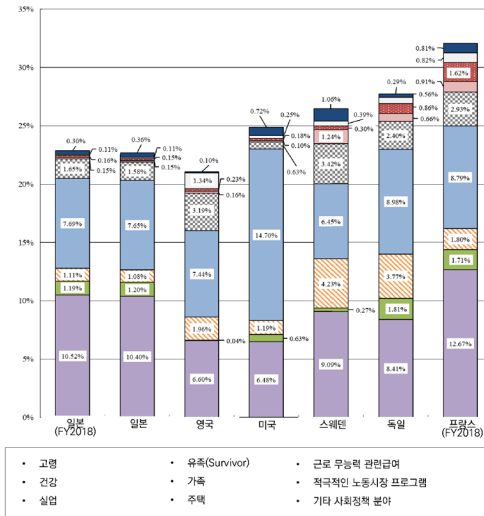


그림 2: 2017 회계연도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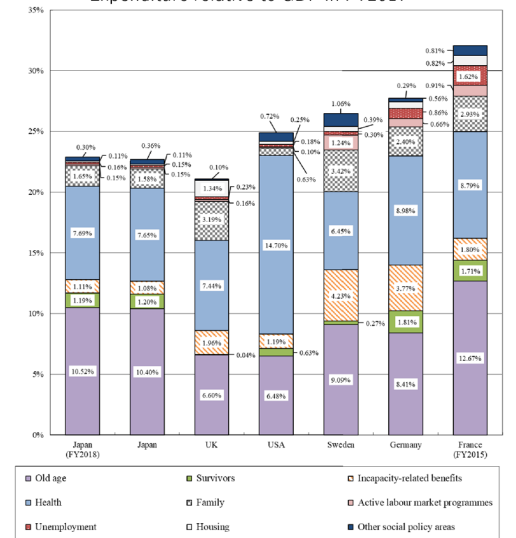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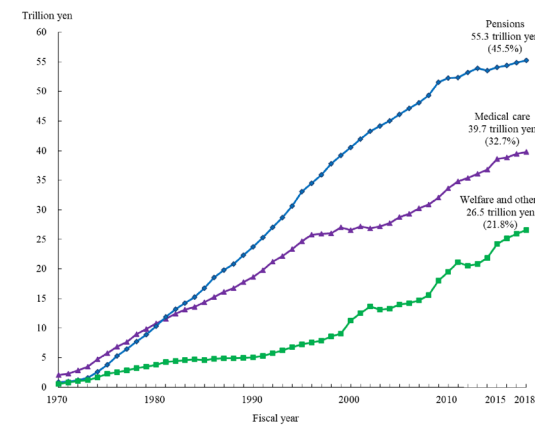


여적자원에 근거하여 IPSS에서 작성함
출처: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 자료는 OECD 사회보장 지출 데이터베이스(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 기초함. (2020년 6월 29일에 다운로드한 자료) 일본 GDP 데이터는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의 "2018 회계연도 국민계정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n National Accounts for FY 2018)"에 기초함. 다른 국가의 데이터는 IPSS가 OECD 연간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Database)를 활용하여 계산한 수치임(2020년 6월 11일에 다운로드한 자료)

The Financial Statistics of Social Security in Japan

Figure2: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Expenditure relative to GDP in FY2017

Figure1: Social benefit by category in FY1970-FY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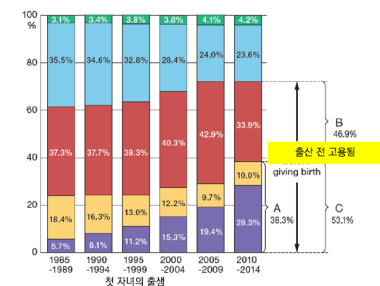


Made by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based on the materials below
Sources: Social Expenditure for OECD countries except Japan is based o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Downloaded on 29th June 2020) GDP data on Japan are based on the Cabinet Office's "Annual Report on National Accounts for FY 2018," while the data on other countries are calculated by IPSS using the data from the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Database. (Downloaded on 11th Jun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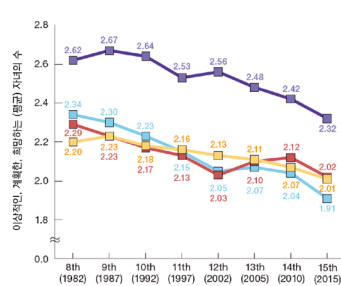
전국 출산율 조사 (1940-2015, 5년 단위)

- 전국 출산율 조사는 IPSS에서 실시하는 5개의 전국단위의 조사 중 하나임
- 조사결과는 출산율을 예측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을 평가 시 활용

● 첫 자녀의 출생년도 별 여성의 출산 전/후의 고용상태 변화



● 이상적인, 계획한, 희망하는 (평균)자녀의 수 변화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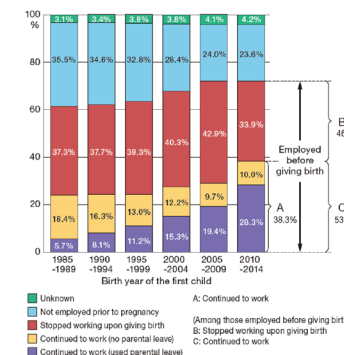


Notes: 결혼한 부부는 50세 미만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미혼 남성과 여성의 경우는 18-34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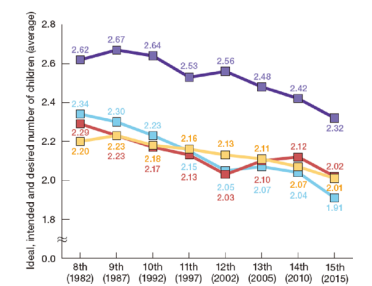
National Fertility Survey (1940-2015, every 5 years)

- The National Fertility Survey is one of the five nationwide surveys conducted by the IPSS.
- Findings are used to determine fertility prospects and to evaluate policies such as the promotion of work-family balance.

●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of wives before and after giving birth, by birth year of the first child



● Changes in the ideal, intended and desired number of children (average), by survey



Notes: Married couples include wives age are under 50, and unmarried men and women are between 18 and 34 years of age

사회보장 및 국민생활 실태조사
(2017)

목적

국민 생활의 역동성, 각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사회보장계획에 의해 뒷받침 되는 사회보장 안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대상 인구집단

무작위로 선정된 300개 공식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각 가정의 가구주 및 성인 구성원(18세 이상) (2017년 7월 현재)

조사방법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밀봉된 봉투에 담아 수집.

N:10,369 가구 및 19,800명 개인
(응답률: 63.5%, 75.0%)

내각부(Cabinet Office)의 정책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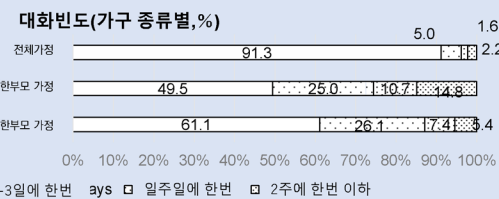
- 아동빈곤 해결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채택됨

식료품/의류 를 구매할 여력이 없던 경험	한부모 가정	식료품 구매여력이 없음	34.9%
		의류 구매여력이 없음	39.7%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	식품 구매여력이 없음	16.9%
		의류 구매여력이 없음	20.9%

아동빈곤완화전략에 관한 정책지침

일본 후생노동성 공식 보고서

-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평가
- 감염병 억제에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킹 패턴 모색



보건의료, 노동, 복지에 관한 연례 보고서 Report 2020

조사결과
는
정책입안을
위한 정보로
활용됨

The National Survey on Social
Security and People's Life (2017)

Aim

To investigate the dynamics of people's life, socioeconomic statu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social support network, and the social safety net underpinned by social security schemes

Target population

Heads of the household and adult individuals (aged 18 years or older) living in 300 survey areas officially selected at random (as of July 01, 2017)

Method of the survey

Self-administrated and collected in a sealed envelope.

#N:10,369 households and 19,800 individuals (RR: 63.5%, 75.0%)

Policy agenda of the Cabine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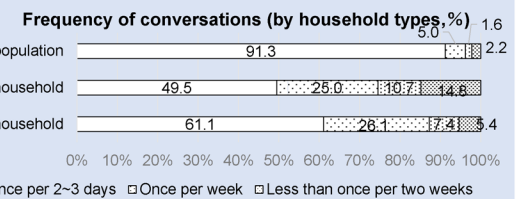
- Adopted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ies addressing child poverty

Experience of failure to afford food / apparels	Single-parent households	Food unaffordable	34.9%
		Apparels unaffordable	39.7%
	Overall child- raising household	Food unaffordable	16.9%
		Apparels unaffordable	20.9%

The Policy Guideline on Child Poverty Alleviation Strategy

Official report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network
- From the prospective of pandemic containment, an exploration of new patterns of social networking is going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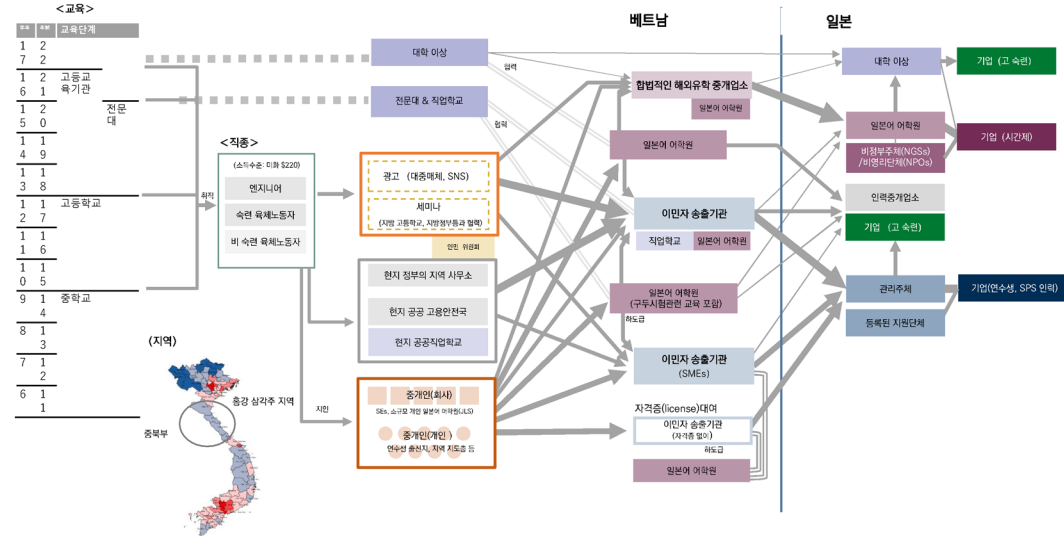


The Annual Health, Labor and Welfare Report 2020

Evidence
generated
to inform
policy
m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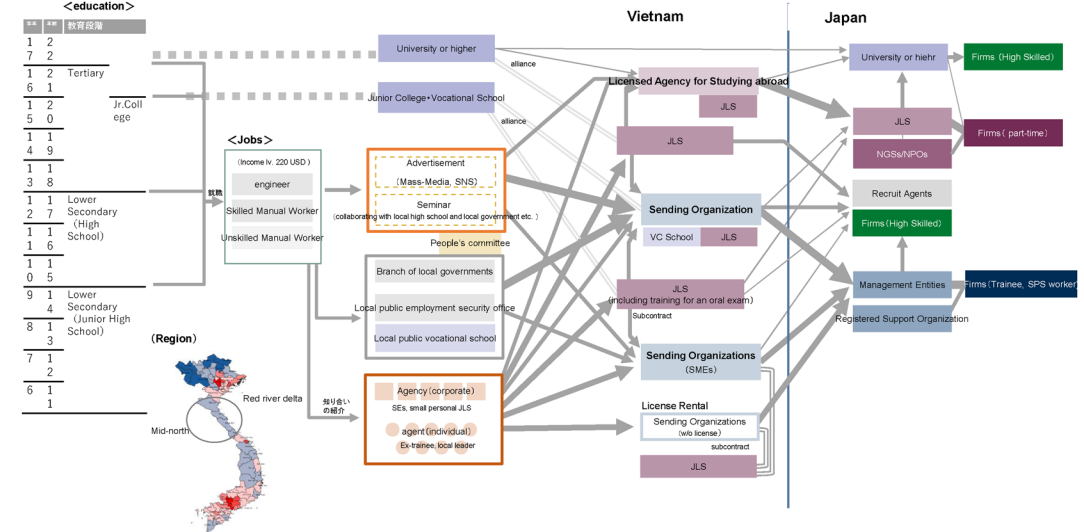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 이민에 대한 연구

예: 베트남-일본으로의 노동이민 절차



Research on Emigration Pressure in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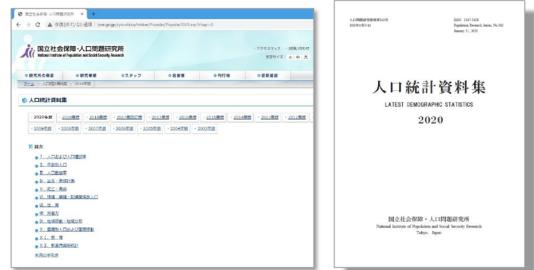
Example: Vietnam to Japan labor migratory process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제연구기관의 역할

정보확산: 인구통계

중요한 국내/국제 인구통계자료를
수집, 선별하여 매년 발표.
이 자료는 정책기획 및 인구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기초통계자료로 활용 됨.
웹페이지도 구축하고 있으며, 방문자의 월간
접근 페이지 뷰는 47,000 페이지 이상, 최근에는
134,000 페이지로 최고치를 기록함.



도서관

연구소 도서관에는 인구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13만권 이상의 도서와 학술논문이 있으며, 이 자료들은 연구자, 정책
입안자 등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음. 연구소의 출간자료
대부분은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 도서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빈도는 매우 높으며, 매월 73,000 이상의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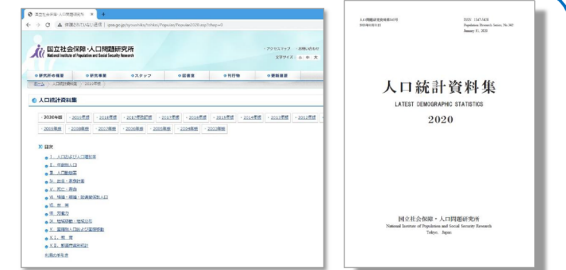


Dissemination : Population Statistics

A collection of selected important statistic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pulation
statistics are published annually.

It is used as basic statistical data for policy
planning and population study.

Web pages are also available with monthly
access more than 47,000 page views and had
a peak of 134,000 recently.



Library

In our library, over 130,000 books and academic
journals on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are available and
it is open to researchers, policy makers, and persons with
interests. Most of our publication is open access through our
web. The library website are visited frequently with monthly
access more than 7,300 page views in 2020



[세션Ⅱ]

발표 3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및 보건의료 정책: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THL)의 역할**

사카리 카르보넨 |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및 보건의료 정책: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THL)의 역할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Social and Health Policies after COVID-19: THL's role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Social Sustainability Team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HL에 대한 간략한 개요

 5 분과	 971 Person-years	 59% 고등교육 이수	 20% 연구원 연수
---	---	--	---

thl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2

A Brief Overview of THL

 5 branches	 971 person-years	 59% with higher education	 20% with researcher training
---	---	--	---

thl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세션 II]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및 보건 의료 정책: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THL)의 역할 | 사카리 카르보넨

THL 조직도

핀란드 사회보건부의 행정분과에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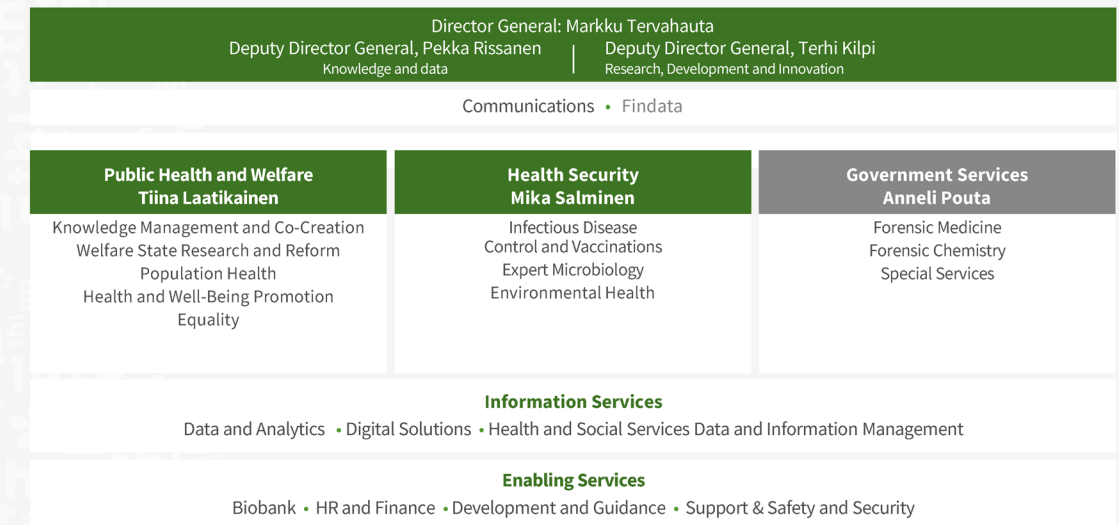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3

Our organisation

We operate in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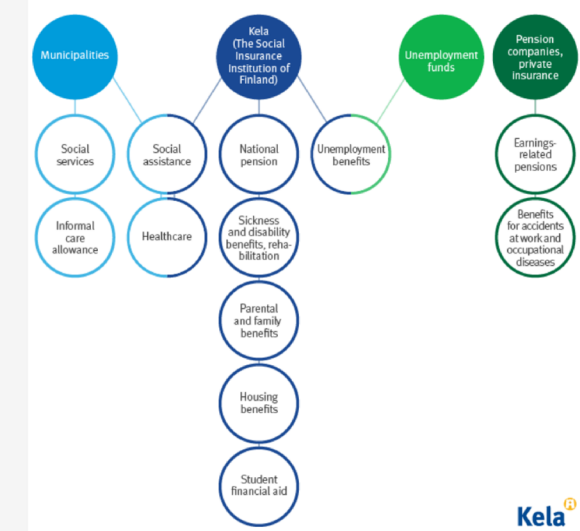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4

Social security in Finland

● Based on residence ● Based on employment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4

코로나-19 -관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정책대책

정책대책 - 첫번째 6개월(3월-8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여행제한: 고위험 지역에서 (재)입국 즉시 격리	(X)	X	X	X	
여행 제한조치(EU): -여가/비 필수적인 목적	(X)	(X)	(X)	(X)	X
- 격리 또는 음성 테스트	(X)	(X)	(X)	(X)	
-이주 노동자 및 기타 "가치 있는 목적"에 대한 예외		(X)	(X)	(X)	
국내 이동제한: -대중 지역인 여행		(X)	(X)	(X)	X
보육 및 교육: -보육원과 유치원 폐쇄	(X)			(X)	
-초등학생에 대한 원격교육	X	(X)		(X)	
-중고등학교에서의 원격교육	X	(X)	(X)	(X)	(X)
-종교 후 교육기관에 원격교육(예: 대학교)	X	(X)	(X)	(X)	X
원격근무 권고: -개인 비즈니스	X	(X)	(X)	X	X
-공공분야 (비 필수)	X	(X)	(X)	X	X
방문자 접근제한: -요양시설 및 병원	X	X	X	X	X
폐쇄 또는 접근제한: -식당 및 술집	(X)	(X)	X	(X)	
-소매상(식음 이외) 및 비 필수적인 소매 서비스	(X)				
-실내 체육시설	(X)	(X)	(X)	(X)	
-문화행사 (콘서트, 극장, 박물관, 관중이 있는 스포츠 등)	(X)	(X)	(X)	(X)	
원속자 추적	X	X	X	X	(X)
물리적 거리두기	1 m	2 m	X	1m	2m
안면 마스크 의무화	(X)	(X)	(X)	(X)	

() = 임시 + 부분,
반으로 의무화 됨Saunes et al. 북유럽 국가의 코로나19 대응(Nordic responses to Covid-19).
핀란드 초기단계에서의 거버넌스 및 정책대책 비교, 2021년 원고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5

Covid-19 -related policy measures for
Scandinavian countries

Policy measures - first 6 months (March - August)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SWEDEN
TRAVEL RESTRICTIONS: Quarantine upon (re)entry from high risk area	(X)	X	X	X	
TRAVEL RESTRICTIONS (EU): - Leisure/non-essential purpose	(X)	(X)	(X)	(X)	X
- Quarantine or negative test	(X)	(X)	(X)	(X)	
-Excep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other "worthy purposes"		(X)	(X)	(X)	
INTERNAL MOBILITY RESTRICTIONS: -travel across regional borders		(X)	(X)	(X)	X
CHILDCARE AND EDUCATION: - closure of nurseries / kindergartens	(X)			(X)	
- remote education in lower primary school	X	(X)		(X)	
- remote education in middle/high schools	X	(X)	(X)	(X)	(X)
- remote post-secondary education (e.g. universities)	X	(X)	(X)	(X)	X
RECOMMENDATION TO REMOTE WORK: - private businesses	X	(X)	(X)	X	X
- public sector (non-essential)	X	(X)	(X)	X	X
RESTRICTING ACCESS FOR VISITORS: - nursing homes and hospitals	X	X	X	X	X
CLOSING OR RESTRICTING ACCESS TO: - restaurants and bars	(X)	(X)	X	(X)	
- retail shops (non-food) and non-essential retail services	(X)				
- indoor sports facilities	(X)	(X)	(X)	(X)	
-cultural events (concerts, theatres, museums, spectator sports etc)	(X)	(X)	(X)	(X)	
CONTACT TRACING	X	X	X	X	(X)
PHYSICAL DISTANCING	1 m	2 m	X	1m	2m
Face mask required	(X)	(X)	(X)	(X)	

() = temporary +
partial,
bold=mandated
by law,Saunes et al. Nordic responses to Covid-19. A comparison of governance and policy measures
in the early phases of the pandemic. Manuscript 2021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5

핵심 사회정책 대책 요약

- 실업보험의 변화:
 - 5일간의 자기지불(self-payment) 기간 삭제; 26주였던 이전의 취업이력 요건을 13주로 완화; 실업기간 산정 시 휴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사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가 지원
- 전염병으로 인해 실업상태인 사람들은 임시지원 신청이 가능. 제한조치로 인해 자녀가 유아교육기관, 돌봄 또는 기초교육 혜택을 받지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부모에게 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초 사회지원 인력에 대한 임시지원
-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은 여러가지 대책을 도입. 예: 연구지원, 장애인 지원, 학교급식, 부모수당 등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6

Summary of key social policy measures

- Changes to unemployment insurance:
 - removing the five-day self-payment period; reducing need for employment prior to unemployment from 26 weeks to 13 weeks; and decreeing that the unemployment period will not be spent during furlough
- Access to unemployment insurance regardless of form of entrepreneurship in order to support entrepreneurs
- Those absent from work with no pay due to the epidemic may apply for temporary support. The support will be paid to a parent who cares for children at home when they are not atte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r basic education due to the restrictions.
- Temporary compensations to basic social assistance clients due to COVID-19 epidemic
-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 (Kela) adopted a number of measures, e.g. on study support, the disabled, school meals, parental benefits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6

THL과 코로나19 정책

- 정부의 코로나19 조정그룹에는 모든 정부부처의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ies)이 포함됨: 내각을 위한 코로나 관련 정책 및 대책을 담당
- 상황에 대한 그림 및 모델링을 담당하는 실무그룹:
 - 역학, 의학, 기능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 코로나19 통계 및 기록(registries)에 대한 관리 및 보고
- 일반국민, 언론 및 여러 기관등을 위한 지시사항 및 정보제공
- 연구: 위탁 및 독립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7

THL and Covid-19 policies

- Member of Government's Covid-19 coordination group that includes permanent secretaries of all Ministries: responsible of preparing covid- policy measures for the cabinet
- the Situational Picture and Modelling Working Group:
 - monitoring using epidemiological, medical, and functional indicators
- Maintenance and reporting of Covid-19 statistics and registries
- Instructions and information for the general population, the media and other authorities
- Research: commissioned and indepen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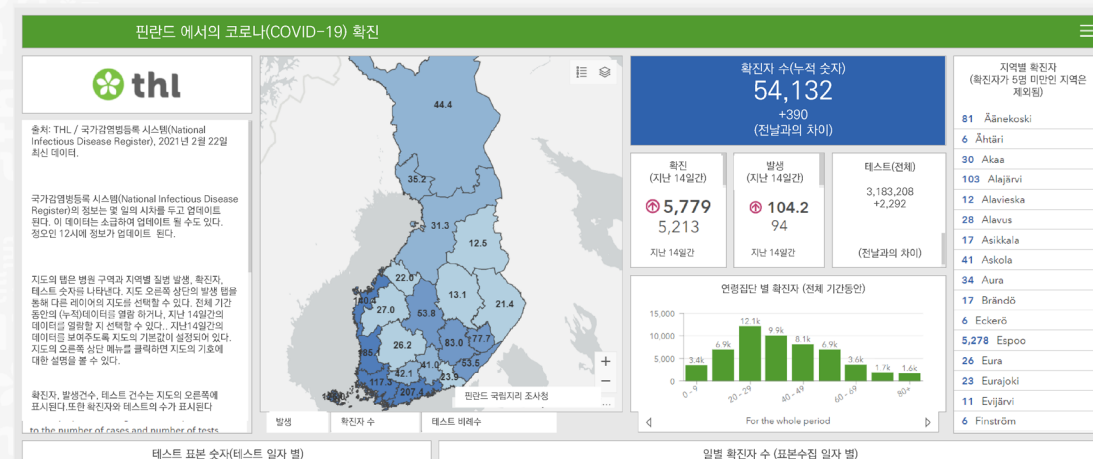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7

코로나 맵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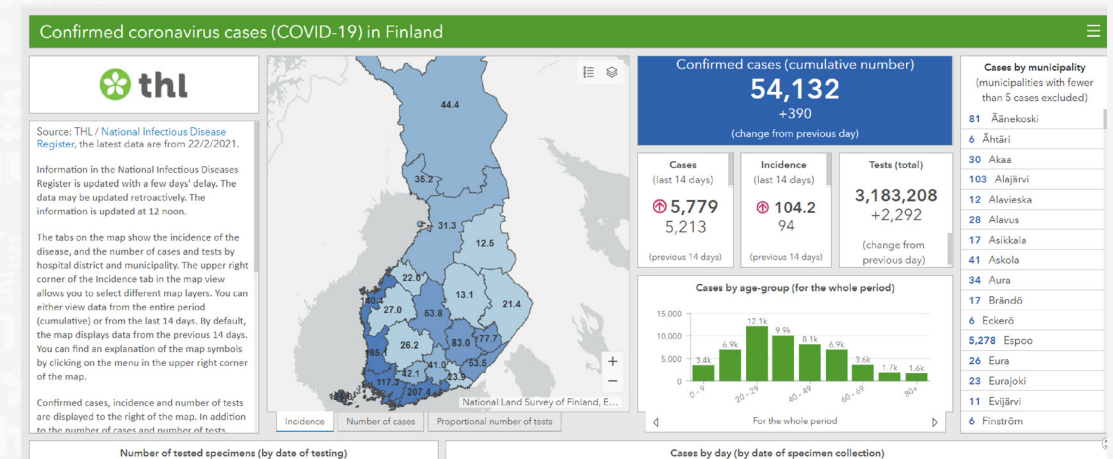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8

The so-called Corona map database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8

코로나19 연구

- 30개의 연구 프로젝트
- 대부분 다른 기관 및 대학들과 공동출자 및 협력을 통해 진행
- 핵심 자금 지원기관: 의회, 핀란드 학술진흥재단(Academy of Finland)
-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
- 예:
 - 코로나19 팬데믹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가장 취약한 집단 과 이들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적 영향**
 - 코로나 전염병이 **일상생활과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FinSote 조사)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인구군 혈청학적 유병률에 대한 연구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9

Research on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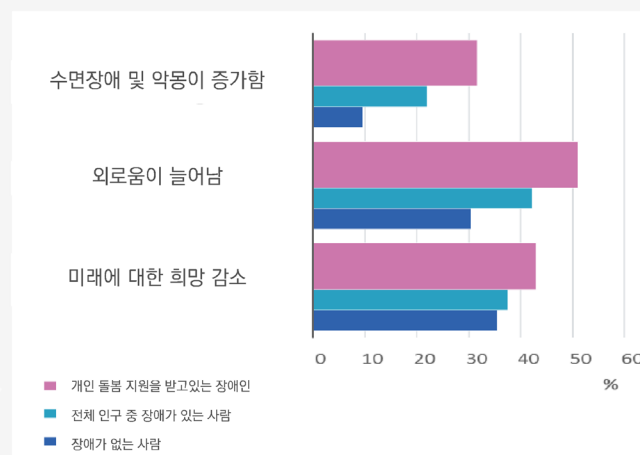
- 30 research projects
- Mostly co-funded and in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es and universities
- Key funders: Parliament, Academy of Finland
- Studies very much in progress
- Examples:
 - **Economic effects** of Covid-19 –epidemic on families with children
 - **Social effects** among the most vulnerable groups and their services
 - The impact of the corona epidemic on **everyday life and use of services** (FinSote survey)
 - Survey of serological population study of the coronavirus epidemic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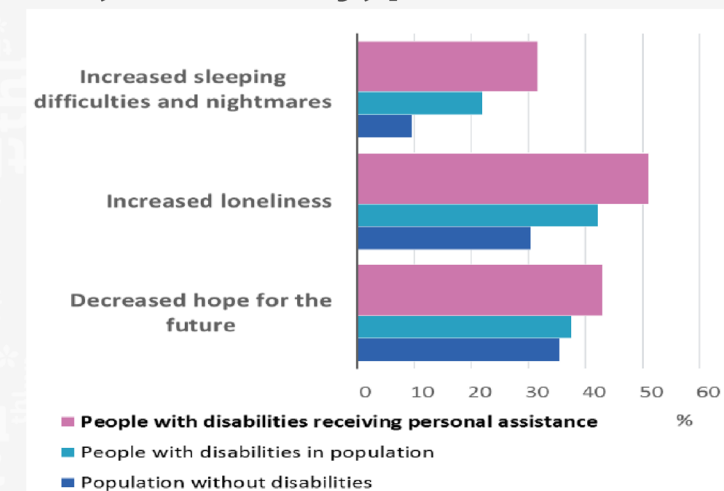
다른 어려움이 있는 집단에서의 삶의 질 하락: 아동복지 지원을 받는 집단, 장애인, 노인, 정신건강이 취약한 집단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10

Decreasing quality of life in groups with other challenges: in child welfare, those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oor mental health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10

팬데믹이 서비스 및 혜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원격 서비스 이용이 엄청나게 증가함. 그러나:

- 디지털 서비스가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노인, 정신건강 재활치료중인 사람, 불법 체류자 (paperless people))
- 정신과 외래환자 치료: 원격 서비스 이용률이 9% 에서 48%로 증가. 그러나 모든 활동이 원격으로 가능한 것은 아님.
- 가정 밖의 아이들에 대한 보호: 데이터 보호의 어려움,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접촉이 어려움
- 이민자들은 언어능력 부족, 문화적 차이, 기술적인 문제, 이용가능 서비스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원격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11

Findings on the effects of the pandemic on services and benefits

Remote service use has increased heavily, but:

- Digital services are not suitable for all (the elderly, for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the paperless people)
- Psychiatric outpatient care: remote use increased from 9 to 48% but not all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like this
- Child protection for those placed outside home: difficulties with data protection, in reaching own social worker
- Immigrants face problems in use of remote services due to poor language skills, cultural differences, technical problems, lack of knowledge of services available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11

사회 및 보건 의료 정책 연구자들이 해야 할 다양한 역할

- 전통적인 연구의 역할
- 시뮬레이션, 예후, 예측
- 독립적인 자문가
- 데이터 제공자
- 소프트웨어 개발자

(접촉자 추적 애플리케이션, "코로나빌꾸(Koronavilkku)")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당국이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함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12

Various roles available for social and health policy researchers

- Conventional research roles
- Simulation, prognosis and forecast
- Independent advisor
- Data provider
- Software developer

(the "Koronavilkku" application for tracing exposures)

However, decision-making strictly by government and regional authorities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12

연구 프로그램 (4개 중) 2개는 보건 의료 및 사회 정책에 주안점을 둠

• 평등한 사회 그리고 불평등



평등한 사회 및 불평등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은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복지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함



변화하는 사회/보건 의료 서비스 및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은 서비스의 효과성, 품질, 비용 효율성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정 집단의 서비스 니즈, 서비스 통합, 서비스, 사회급여, 소득 사이의 양립성(competibility)에 대해서도 고려 함

• 변화하는 사회/보건 의료 서비스 및 사회보장체계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13

Two (out of four) research programmes focus on health and social policy

• Equal Society and Inequality



The Research Programme on Equal Society and Inequality studies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equality, the ways in which the welfare state can reduce inequality, as well as its consequences.



The Research Programme on Changing Social and Health Care Services and Social Security System focuses on the system-level analyses of effectiveness, quality and cost-efficiency of services,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service needs of special groups, service integration and the compatibility between services, social benefits and income.

• Changing Social and Health Care Services and Social Security System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13

남아있는 주요 과제: 기후변화, 인구 노령화

사회보장 개혁의 목적은 제대로 기능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

1. 변화하는 모든 삶의 단계에 개입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2. 높은 수준의 시의 적절하고 충분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
3. 업무방식의 변화를 고려
4. 수익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고, 의미 있음(meaningfulness)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5. 장기적인 소득지원 필요성 경감
6. 사람들이 사회의 변화를 잘 헤쳐 나가도록 보장해줌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14

Grand challenges remain: climate change and aging of the population

Social security reform aims for well-functioning system that:

1. stays involved through changes in people's lives
2. provides a timely and sufficiently high level of benefits and services
3. takes into account the transformation of work
4. makes work more profitable and supports employment and an experience of meaningfulness
5. reduces the need for long-term income support
6. ensures that people manage to go through changes in society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14

남아있는 주요 과제, 두 개의 포인트: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개혁

- 광의적 목표:
 1. 서비스 접근에서의 평등 개선
 2. 품질 및 효과성 보장
 3. 서비스의 다학제성 및 상호운용성 증진
 4. 비용증가 억제
- THL의 여러가지 역할: THL은
 - 사회적 복지 및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 감독, 평가, 개발, 운영(steering) 활동을 진행할 것임
 - 연구활동 이외에도 전문가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음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15

Remaining challenges, pt 2: The health and social services reform

- Large scale aims:
 1. improve equality in service access
 2. ensure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3. promote multi-disciplinarity and the interoperability of services
 4. curb the increase in costs
- THL has multiple roles, it will:
 - study, monitor, evaluate, develop and steer activities in the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sector
 - i.e. beyond research there will be high demand for expert assistance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15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보건 의료 및 사회정책 연구와 그 외 역할에 대한 변화

- 서비스 디지털화에 대한 높은 기대(관리 및 개발)
- 데이터 생산자 및 제공자로서의 THL의 역할은 새로운 압박에 직면할 것: 이전보다 좀 더 최신의 심도 있는 데이터 요구
- 보건 의료 및 사회정책 체계, 사회 전체의 적응력 및 복원력 관련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대함
- 전염병은 사회가 얼마나 (거대한) 도전에 잘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갭을 드러냄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16

Post-Covid-19 changes and challenges for health and social policy research and other roles

- High expectations on digitalisation of services in future (maintenance, development)
- THL's role as data producer and provider will face new pressures: data should be more up-to-date and more profound than before
- Answers are expected to questions on adaptation and resilience of the health and social policy system and the wider society
- The epidemic has revealed gaps in how well the society is prepared to tackle such (grand) challenges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16





정책관련 연구의 효과성에 대해

thl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17





On effectiveness of policy-relevant research

thl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17

연락처:
사카리 카르보넨
연구교수
사회과학 학부 겸임교수
사회 지속가능성 팀

THL -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Tel: +358 29 524 7449
E-mail: sakari.karvonen@thl.fi





Kiitos!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thl

사카리 카르보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9.3.2021 18

Contact: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D.Soc.Sci, Adjunct
Professor
Social Sustainability Team
THL -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el: +358 29 524 7449
E-mail:
sakari.karvonen@thl.fi





Kiito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l

Sakari Karvonen, Research Professor

2.3.2021 18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illegible]